

제429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정기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2일(화)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통신위원회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라. 우주항공청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우주항공청

상정된 안건

1.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2
2.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4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통신위원회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라. 우주항공청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4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우주항공청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소위에서 의결된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경훈 과기부장관은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참하였으며 위원장과 양당 간

사의 양해를 얻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회의가 길어질 경우 중간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이주희 위원님이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보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보임되신 이주희 위원님께서서는 소관 법안 심사와 청원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10분)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개편 관련한 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방송미디어통신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진술인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 후에 빠른 시일 내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청회 계획서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최형두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표결로 합니까?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최형두 위원 잠깐 반대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의견을 말씀드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드리세요. 2분 드릴게요.

○최형두 위원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가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새로운 제정 법안인데 이게 2006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서 2008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개편이 된 방송통신위원회 체계를 또 개편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개정안도 아니고 제정 법안이고 또 정부의 주요 기능, 정부의 주요 직제를 만드는 것인 만큼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던 것처럼 적어도 총리실 산하에서 새로운 직제의 적절성 또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법 상정과 통과를 전제해 놓고 국회에서 통과예제적인 공청회로 이렇게 거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저희 생각은 정말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방송 규제 또는 진흥 기능을 조정하려고 이렇게 하시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정부의 전체 직제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또 정부의 새로운 기능 조정과 관련된 것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우선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총리실 산하에서 이 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두고 국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모든 논의가 대부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또 공영방송의 이사와 대표 또 보도국장, 보도편집 책임자의 구성에 관한 문제, 그 방침에 대한 문제인 만큼 굉장히 논란이 길었는데 이 문제도 이번에 공영

방송과 이른바 방송 지배구조, 이 지배구조도 더 이상 정쟁이 되지 않도록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회에서도 특위 차원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통과 의례로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어제 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의장께서 22대 국회의 성과로 가장 먼저 언급한 법안이 뭔지 아십니까? AI 기본법이었습니다.

저희가 방송장악과 그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방송이 주요 이슈가 된 것은 맞습니다만 적어도 저희는 AI와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논의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의장님이 첫 번째 언급하신 법안이 AI 기본법 통과, 가장 큰 성과로 꼽으셨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현 간사님 2분 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지난주에 2소위를 열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1차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서 최형두 간사님이 2008년도 얘기를 언급하셨는데요, 맞는 얘기고요. 2006년도부터 2007년도에 논의된 것을 2008년도에 방통위 설치법으로 제정법을 실현해서 2008년도부터 진행을 했고요.

다만 박근혜 정부 때 유료방송 사업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시켜서 방송 사업자가 일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제 기능을 하고 있고 일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제 기능을 하고 있어서 통합을 하겠다라는 게 이번 설치법의 주요한 골자이고요.

또 하나는 법사위에 이미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해서 구조 개편하는 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논의가 국무총리 산하에 만들어질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다룰 의제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리된 바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회가 해야 될 일은 국회가 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은 엄연히 국회 본연의 임무인 만큼 방통위가 정상화되는 법에 대해서 저희는 차질 없이 제2소위에서 논의해 나간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와 덧붙여서 통합미디어법 제정이나 아니면 그동안 방송사업자들이 제기했던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텔레비전 수신료 문제와 관련해서 KBS가 제대로 정상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형두 간사님이 제기한 법에 대해서도 차후에 충분히 다루겠고요. 그다음 AI 기본법에 따르는 후속조치도 같이 함께 할 거고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것임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청회인데 표결할까요? 의결……

○**최형두 위원** 저희들은 공청회도 이렇게 통과의례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의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의결을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2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청회 실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방송통신위원회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라. 우주항공청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우주항공청

(11시16분)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우주항공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인철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조인철 위원장입니다.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13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 18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분야 AI 서비스 분야의 신규사업이 확대되면서 유사·중복 사업이 다수 나타나고 있어 유사사업 간 통합 추진 등 의료 분야 AI 사업의 관리·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출연연 연구원의 성과 제고 및 창업 촉진을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을 요구하는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여 시정 6건, 주의 48건, 제도개선 70건에서 이 중 2개 이상의 시정요구사항 유형이 채택된 중복 18건이 있으므로 총 107건의 시정요구를 하며 1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국회 지적에도 불법스팸 전송 등에 대한 벌금, 과태료, 가산금 등에서 연례적으로 징수율이 낮게 나타나고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미수납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수납률을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변상 1건, 징계 1건, 시정 5건, 주의 4건, 제도개선 7건과 이 중 2개 이상의 시정요구사항 유형이 선택된

중복 4건이 있으므로 총 14건의 시정요구를 하며 6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개발 R&D 사업에서 R&D 사업 중 정산이 지연된 2023년 종료 과제의 조속한 정산을 이행하고 사용잔액의 국고 납입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엄밀한 연구개발비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도개선 5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주항공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비 대상 기획조정관 기본경비에서 국가재정법과 예산집행지침은 예비비 전용 및 이월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비비를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불필요한 전용·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주의 3건, 제도개선 6건, 총 9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민희** 조인철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는 차례입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분.

○**한민수 위원** 여기에 관련된 것만 합니까?

○**위원장 최민희** 아닙니다. 현안질의 하셔도 됩니다.

○**한민수 위원**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에게 질의한 게 지난 6월 27일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어떤 내용을 했는지 간략하게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위원장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다가 증오심을 좀 빼고 국민의 입장에서 돌아봐 달라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난 8월 20일에도 보니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의 질의 답변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 보실 때 좀 언짢은 장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진숙 위원장에게 하는 이번 질의가 개인적으로 마지막 질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께서 2024년 기준으로 지금 장관급 공직자니까 연봉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게 확인하셨다면 맞을 것입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면 지난해 대한민국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아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잘 모르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한 373만 원 정도 됩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약 4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위원장 연봉이 국민 평균보다 3배 정도 많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다 우리 국민들 세금이지요. 위원장에게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들이 위법하고 불법적인 문제, 탈법적인 문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사인이라면 그런 지적을 하겠습니까? 지금 공

직자로서 국민 세금을 받고 일을 하는데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도로에서 과속하거나 끼어들기만 해도 과태료 내고 벌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까지 보면, 현재에서마저도 여러 지적을 합니다. 당시 탄핵심판에서도 현재 재판관 4인이 2인 체제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도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을 저질렀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이진숙 위원장은 복귀한 뒤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방통위 복귀 이후에도 2인 체제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재개하고 또 신임 EBS 사장을 본인과 가까운 사람으로 임명하고 이렇게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시하고 방송장악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그런데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들입니다. 다른 여러 논란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만 제가 추려 왔습니다.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는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경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한민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이것은 주식 보유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런 고위공직자, 장관급 공직자를 어떻게 놔두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정략적으로 본인을 몰아내려고 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진숙 위원장은 개인적인 감정, 증오심을 좀 빼고 돌아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 질의에 대한 댓글을 남기셨어요. 대략적인, 과한 내용들은 좀 뺐습니다. 뺐는데도, 우리 국민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제 이진숙 위원장 그만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나오면, 과방위 현안질의에도 나오면 본인은 방통위 직무를 잘하고 있다, 대통령 뭣, 국회 뭣 추천해 달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하나 때문에 단통법 개정, 방송 3법 개정으로 방통위가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전혀 불가능한 상황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볼까요?

이 얘기를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한 유력 일간지가 보도를 냈습니다.

혹시 이진숙 위원장은 전한길 씨를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압니다.

○**한민수 위원** 그렇군요. 저는 전한길 씨가 이진숙 위원장하고 학교 선후배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대구시장은 이진숙 위원장이 해야 한다’, ‘대구시장 공천을 한다면 이진숙 위원장이 가야 된다’. 이분하고 개인적으로 아니까 이런 얘기들 나눈 적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없습니다.

○**한민수 위원** 저는 지금 이런 것 자체가, 오늘 어떤 칼럼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한길당의 장동혁 대표’, 전한길 씨가 뭐길래 이런 식의, 제1야당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한심한데 고위공직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인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진숙 위원장의 지금 업무에 올바른 영향을 주겠습니까? 지금 벌써 ‘지방선거에 나와야 된다. 대구시장 공천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법인카드 관련해서는 제가 업무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공개를 했고……

○**한민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전한길 씨의 이런 주장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방위 민주당에서 저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 수사 중이고요.

○**한민수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이 관련해서는 어느 특정인이 저를 추천한다든가 의견을 표명했다고 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연결시키는 것은 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민수 위원** 왜냐하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PPT 보셨듯이 이진숙 위원장은 감사원으로부터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 이런 주의 처분까지 받았습시다. 받은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래서 주의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받은 상황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제1야당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한길 씨라는 분이 대놓고 본인 유튜브를 떠나서 언론에다 대놓고도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의 신분이 지금 방통위원장이 아니라면 별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사인이라면 이런 얘기를 하든 개별적으로 만나서 공천 청탁을 하든 뭐 얘기 하든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장관급 고위공직자 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해서 1년에 450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 지금 이렇게 단통법 얘기, 방송 3법 얘기 다 개정된 걸 가지고도, 방통위에서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일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식의, 정치적 행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라도 직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학 선후배가 됐든 개인적으로 아신다고 하니까 대구시장 공천 문제를 논의하든 그때 가서 하는 것은 자유예요. 하지만 지금 고위공직자로서는 처신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논란을 만들지 말고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다. 우리 국민들이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전혀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민수 위원 아까 답변 때 안 하셨으니까요 안 들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전한길 씨랑 논의한 적 없다. 알겠습니다.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훈 위원 잠깐만요.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 준비됐나요?

○위원장 최민희 다시요. 7분부터 다시 합니다.

○박정훈 위원 소리 좀 다시 키워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국민 여러분께서 저 장면을 보시면 마치 과거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을 혼내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과 관련해서 점수를 조작한 사건에 연루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하나의, 일종의 사건이 됐어요. 대한민국 역사에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려고 하는 시도는 아마 그게 유일할 거고 앞으로도 그런 시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엄청난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면직했을 때 당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에요. 임기가 보장된 사람을 저렇게 끌어내리는 것은 직권남용이고 방송장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면직하겠다고 청와대의 강유정 대변인이 검토하겠다고 얘기했지요. 들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들었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면 면직할 사유가 점수를 조작한 사람을 면직하는 데도 그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던 정부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발언을 했다, 공무원의 중립을 어기는 발언을 했다, 감사원에서 주의를 받았다 이 이유로 지금 면직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 법인카드 얘기는 들어 있어요, 면직하겠다는 이유에?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박정훈 위원 왜냐하면 법인카드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본인이 법인카드를 더 썼는데. 경기도 법인카드 1억 넘게 써서 기소돼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런데 무슨 법인카드 얘기를 거기서 꺼낼 수가 없을 거예요. 꺼낼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보고 웃습니다, 그런 얘기 하면.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해서 이 주의 조치를 받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취임 이틀 만에 탄핵당했기 때문에……

○박정훈 위원 그렇지요. 취임 이틀 만에 탄핵을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습니다.

○박정훈 위원 취임 이틀 만에 탄핵을 왜 했습니까? 2인 체제 만들어서 2인 체제에서 불법적으로 의결했다고 탄핵한 거잖아요. 2인 체제 누가 만들었어요? 민주당이 만들었잖아요. 국회 추천 몫 추천했습니까? 안 해서 2인 체제를 고의적으로 만들어서 2인 체제의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방통위를 무력화시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든 게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을 갖다가 다 떠넘기는 것 아니에요, 이진숙 위원장한테? 그게 말이 돼

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민주당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한다 또 상상할 수 없는 부분도 한다라고 지적했던 것이 바로 취임 이틀 만에 저를 탄핵했기 때문에 한 부분에 해당된 말입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취임 이틀 만에 어떻게 탄핵을 합니까? 그리고 서른 번 가까이 탄핵한 것 중에 대통령 탄핵 말고 인용된 것 하나라도 있어요? 민주당 거기서 사과한 것 있습니까? 국정을 완전 발목을 잡아 놓고 사과 한 번 한 적 있어요? 그게 현재에서 인용된 게 대통령 탄핵 말고 한 건도 없어요. 그렇게 탄핵 권한을 남발해 놓고 독재적으로 국회를 운영해 놓고 그 책임을 지금 다 이진숙 위원장한테 물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일관되게 방송통신위원회 5인 체제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지방선거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제 임기를 채우면 제가 지방선거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정훈 위원** 그리고 지방선거에 나갈……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 얘기 했던데 우상호 정무수석 그러면 강원지사 안 나간대요? 안 나갈 거예요, 강원지사? 나갈 거면 그만둬야지요, 그러면.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우상호 정무수석 강원지사 나가나 안 나가나 제가 보겠어요. 만약에 나간다면 본인도 지금 정무직 고위공무원이기 때문에 물러나야 돼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정무직공무원이라는 게 선거하러 나갈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게 국민적 상식이고. 그게 과했을 때는 문제 삼아야지요.

이 발언 내용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말이 세요, 듣기에는. 정무직공무원이 이런 말을 해도 되나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이틀 만에 탄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한 말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과하게 없어요.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를 해서 강력한 조치를 한 거지만, 이런 말을 안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런 말을 한 데 대한 사정이 있잖아요. 괜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유로 사람을 면직하겠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임기가 2년으로 보장이 돼 있는 방통위원장이잖아요. 방통위원장 임기를 왜 보장해 댔어요? 말씀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뒀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위원** 당연하지요.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 놓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임기를 보장한 것은 정권의 바람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년 더 남은 사람을 갖다가 그냥 쫓아내겠다? 쫓아내려면 그냥 방송장악하겠다고 얘기하고 쫓아내라고요,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게. 아닌 것처럼 포장하지 말라고요. ‘정권 바뀌었으니까 우리하고 코드 맞는 사람 방통위원장 해야 되니까 그냥 물러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만들어서 다시 법을 바꿔서 방통위를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미디어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건데 거기 미디어라는 이름 하나 들어가면 뭐가 달라 집니까? 5명에서 7명으로 위원 늘리면 뭐가 달라져요?

그냥 본질은 방송을 장악해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KBS 사장 바꾸고 YTN 사장 바꾸고 연합뉴스 사장 바꾸고 모든 편집에 관여할 수 있게끔 노조가 관여할 수 있게끔 구조 만들고 그래서 방송장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삼척동자가 봐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공정한 틀을 통해서 뭔가 개선하는 듯한 이런 코스프레를 하고 앉아 있는데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특히 대통령실에서 직권면직 검토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앞으로 저에 대한 수사에 일종의 지침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기소를 생각지 않더라도 기소를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고도 남을 정권이에요. 그러고도 남을 정권인데, 어쨌든 끝까지 버틸 수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제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위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아까 댓글 보여 주면서 물러나라 이런 사람들 많다는데 물러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국민들도 많아요.

○위원장 최민희 1분 더 드리세요.

○박정훈 위원 물론 제가 지난번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이 바뀌면 그 정부에 맞는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쫓아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방송을 장악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아닌 것처럼,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처럼, 법을 바꿔서 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국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더 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완전히 나를 쫓아내는 거다’, ‘방송장악을 위한 거다’, ‘KBS 사장 바꾸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기자회견도 하시고 더 목소리를 내세요. 그래야 저희들도 같이 싸울 것 아닙니까?

적어도 방송장악하는 것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독재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는 거라는 것을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게끔 더 목소리를 내시라고요. 그리고 대구시장을 나가시든 뭘 하시든 그건 다음에 생각하시고 일단은 그 자리에서, 국민들이 맡겨 준 그 자리에서, 세비 받고 하는 그 자리에서 본인이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5인 체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몇 가지 바로잡겠습니다.

일단 2인 체제를 만든 게 민주당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무수석과 방송통신위원장은 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얘기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구혁채 제1차관님, 지난 회의 때 국제비즈니스벨트법 관련해서 답변에 착오가 있으셨

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정정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김장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벌칙규정의 완화에 관한 사항을 질의해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고 잘못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지적대로 경제자유구역법은 아직 관련 조항이 개정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설명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차후 사실관계를 잘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장겸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실……

○김장겸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최형두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30초……

○위원장 최민희 좀 이따 하세요.

○최형두 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매번 팩트체크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팩트체크를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보면, 헌법재판소 심리에 관해 보면 최민희 위원장을 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은 7개월간은 지난 정부의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 왜 국회 몫 3인을 국회가 추천하지 않느냐,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인 체제 복원 문제의 책임은 국회와 민주당에 있습니다.

○김현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최형두 위원 앞으로 최민희 위원장님 팩트체크에 저도 일일이 팩트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팩트체크합니다. 만약에 최형두 간사님이 팩트체크하시면 똑같은 양을 김현 간사에게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저는 발언권도 안 뿔잖아요. 마이크도 안 뿔잖아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래서 이정현 위원님 기다리셨으니까 질의하시고 그리고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7분 드리세요.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요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장 바쁜 업무가 뭔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최근에 말씀이십니까?

○이정현 위원 예. 시급한 현안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바쁘게 일하시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내부적으로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 현장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한가할 시간은 없고 바쁘시군요, 요즘에?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내부적으로 일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 거지요?

그런데 지난 8월 27일 수요일 오후 3시쯤에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이정현 위원 오후 3시쯤에 올리신 것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확인하셨다면 맞을 것입니다.

○이정현 위원 항상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자신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회피하시듯이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정현 위원 8월 27일 수요일이면, 평일 근무시간 오후 3시쯤에 본인의 개인 글을 페이스북에 올릴 정도로 요즘에 한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앞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뺑에 관하여’라고 하는 글을 올리셨군요. 그래서 저는 오늘 회계연도 결산을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뺑에 관하여’라는 글에 관하여 제가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이진숙 위원장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그리고 올해 결산심사에서도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그 관련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도 계속해서 이진숙 위원장의 말에 편을 드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팩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적으로 법인카드 사용한 것처럼 왜곡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묵과할 수 없다는 말도 하셨고요. 너무 많은 의혹과 말 바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팩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선전·선동에 도움이 된다면 사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저희를 비판했는데 저희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진숙 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퇴 하루 전날, 2018년 1월 8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퇴서를 제출한 날이 1월 8일인데 그날 저녁까지도 서울에서 법인카드를 써서 그런 것처럼 저는 생각합니다. 사퇴서를 내고 서울로 올라간 뒤에도 법인카드를 썼는데 그래서 그날을 사퇴서를 제출한 날이라고 안 하고 꼭 사퇴 하루 전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1월 9일 자로 사퇴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1월 8일에 사퇴서를 냈잖아요.

저도 방송국에서 근무를 하고 사표도 내 봤습니다만 사표를 내게 되면 신분증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법인카드 다 제출하고 나갑니다. 사퇴서가 회사에서 언제 처리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사퇴서를 내면, 사표를 내면 그날 다 내고 가는 건데 그날조차도 서울에 올라가서 법인카드를 썼다는 겁니다.

‘빵에 관하여’라는 글을 보면 ‘수행비서는 대전에서 서울 집까지 회사 차량으로 나를 데려다주었다. 수행비서와 함께 집 부근 베이커리에서 과자류를 사고 법인카드도 맡겼다’.

그러면 1월 8일 오후에 사퇴서를 대전MBC에 제출하고 수행비서가 모는 자동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서 수행비서와 함께 집 부근 베이커리에서 과자류를 사신 것이 맞습니까, 이 글대로라면?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이정현 위원 그러면 그날 오후에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 집 근처 베이커리에서 과자류를 사고 그다음에 카드와 과자류를 경영국장에게 전달하라고 하고 경영국장이 수고한 분들에게 전달하도록 조치했다 이것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2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모자라서 대전에서 보충해서 구입해서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월 8일 오후에 서울로 수행비서가 타는 차를 몰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서울 대치동 집 근처에서 빵을 샀고 그 빵이 모자라니까 카드를 주고 수행비서한테 사서 경영국장에게 전달해라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진술이 바뀌었다는 것 제가 PPT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PPT 표 한번 보십시오.

빵을 사신 날은 서울에서 산 날이 오후 2시 31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제출하기 전에 서울에서 이미 나폴레옹제과점에서 43만 9600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으로 같이 내려가셔서 5시 6분에 뚜레쥬르 대전도안목원대점, 대전에 있는, 이진숙 위원장의 집 바로 옆에 있는 뚜레쥬르에서 53만 4100원을 샀어요.

이미 빵 2개를 다 사고 그리고 나서 사표 제출하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벌써 여기 글에 있는 진술이 다르잖아요. 서울로 올라가서 빵을 먼저 사고 그다음에 법인카드를 줘서 그다음 날쯤이나 해서 경영국장에게 전달하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데 있어서 진술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5시 6분에 대전 뚜레쥬르에서 사고 8시 15분에 대치동 집 근처의 사월에보리밥 집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어요. 8시 15분에 결제했다면 최소한 7시 30분쯤에는 도착해서 밥을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2시간 정도 만에 대전에 있다 서울로 가셨고.

그런데 벌써 진술의 순서가 달라졌잖아요, 빵을 구입하는 순서가. 이런 데서 진술이 오락가락하니까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겁니다, 저 100만 원어치.

그리고 지금 빵 빵 빵 한다라고 저희한테 비판을 하셨는데 저 사퇴한 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빵을 제가 대충 큰 것들만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나폴레옹과자점에서 43만

9600원, 뚜레쥬르 53만 4100원……

로쏘주식회사 이것은 거짓말을 하셨던 것 맞지요? 기억하시지요?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을 계속했던 이유는 이런 거짓말이에요. 성심당에서 본인의 돈으로, 본인의 카드로 샀다라고 주장했다가 제가 이 증거를 들이대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했잖아요. 이것도 법인카드로 산 것 아닙니까, 성심당 109만 7900원. 파리크라상에서 111만 3000원. 몇가지 정도만…… 지금 네 가지를 했는데도 318만 5000원어치의 빵을 샀어요. 이것 말고도 작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새벽 시간대 빵집에서 4000원짜리 결제한 것도 있고 말이지요, 아침에도. 그래서 저희가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로쏘 관련해서는…… 이런 자리에서 성심당을 거명하는 게 저도 참 자괴감이 듭니다만 저는 2024년 6월 24·25·26, 사흘 동안 거의 사실상 꿈쩍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정현 위원**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아니요,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정현 위원** 빵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직원들에게 확인을 하라고 시켰고.

○**이정현 위원**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정현 위원** 됐습니다. 시간을 좀 멈춰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다시 1분에서 시작하세요.

○**이정현 위원** 지금 구입한 기본적인 팩트조차 그동안에 말했던 것하고 틀려졌잖아요, 달라졌잖아요. 대전에서 먼저 산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사고 내려보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순서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글에서도 굉장히 논리적인 모순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롤케이크와 쿠키를 샀다고 했다가 또 중간쯤에 가면 롤케이크와 쿠키를 샀는지 아직까지도 기억하지 못한다. 자꾸 처음에는 과자류를 샀다가 빵을 샀다고 했다가 롤케이크라고 했다가 제가 또 지적하니깐 롤케이크와 쿠키라고 했다가 그것도 기억을 못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10년 전의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정현 위원** 10년 전의 일이 아니고……

그러면 아까 순서는 왜 바뀐 겁니까, 빵을 샀다라고 하는 것이? 순서는 아니고 그날 사퇴한 날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수행기사 전화를 받고 수행기사 설명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정현 위원** 7년 전의 일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근무시간에 올린 ‘빵에 관하여’라는 글의 마무리를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단기간 속이는 것은 가능하고 많은 사람을 단기간 속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영원히 속이는 건 불가능하다’ 제가 이 말을 이진숙 위원장에게 되돌려 드립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도 같이 되돌려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감사합니다. 참고로 8월 27일은 제가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서 중간에 남는 시간이 있길래 제가 대기 장소에서 쓴 것입니다. 방금 기억났습니다.

○**이정현 위원** 8월 27일? 8월 27일은 수요일인데.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이날은 제가 국회 예결위에 아마 왔을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결위?

○**이정현 위원** 국회 예결위에서는 그냥 쉬는 시간입니까, 그러면?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아니에요. 쉬는 시간이 있길래 다른 대기 장소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노종면 위원** 정회 시간에? 8월 27일?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어쨌든 업무 중 시간이지요?

○**이정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권 위원** 박충권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오늘의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22대 국회 시작부터 민주당의 상임위 독단적 운영에 대해서 지속 문제 제기를 하고 규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진행하는 것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오늘의 이 사안은 야당을 배제하고 국회를 독점하겠다는, 일당독재하겠다는 민주당의 속내를 드러내는 또 다른 하나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가 개원식이지요? 정말 상징적인, 대조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지요. 국회를 독점한 민주당이 마치 국회관 헬러윈데이 보는 것 같은, 축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연출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극과 극으로 우리는 정말 상복을 입고 결연한 표정으로 본회의장에 참가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 독재에 저항해서 정말 이곳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회민주주의가 사라졌다, 죽었다라는 걸 우리 의사를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지금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런 막무가내식 상임위 운영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국회 운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정부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충분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오늘 아침에 11시 상임위 시작하기 직전에 와서 우리 야당에게 일방 통보하고 자기들은 다 자기들끼리 준비해 놓고 아무 준비도 못 하게 하는 것, 이것 정말 상도에도 맞지 않고 야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의 실책이 가려지고 전 정부의 실책이 더 커지고 이진숙 위원장이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국

민들은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방금 전한길 뉴스를 얘기를 하면서 또 이진숙 위원장 공격하는데 전한길 뉴스의 당대표라는 표현도 어떤 동료 위원님께서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민주당은 김어준당의 당대표고 김어준당 출신의 대통령입니까? 지난 22대 총선 때 여러 국회의원 후보들께서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김어준 씨가 시청자들에게 절하라고 하면 우르르 가서 절하고, 다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이? 이렇게 말하면 정말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빵 얘기 또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압박을 받고 이진숙 위원장님 작년에 임명되시고 나서 이틀 만에 탄핵되고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또 돌아오시자마자 바로 상임위 회의장에 이렇게 끌어내서 정말 마녀사냥식으로 사람을 정말 처참하게 이렇게 공격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압박받는 것도 모자라서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면직 검토한다고? 그래서 이런 억울함, 이 압박감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아마 SNS에 ‘빵에 관하여’ 이런 글도 쓰신 것 같은데……

제가 위원장님께 충분하게 시간을 드릴게요, 3분 40초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간의 소회를 충분히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2024년 6월 24일에서 26일 3일 동안 거의 쉴 사이 없이 인사청문회를 거쳤습니다. 장관급으로는 역사상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뒤로 제가 7월 31일에 위원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당시에 공영방송사 MBC의 이사회는 8월 12일 이사들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고 KBS는 8월 말로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대기하는, 기다리는 시간에 이사로 추천된 분들을 검토를 해서 7월 31일에 공영방송 이사들을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소위 2인 체제의 문제성을, 2인 체제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이틀 만에 저를 탄핵시켰습니다. 저는 그때 다른 장소에서도 밝혔지만 저를 탄핵한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했다고 믿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174일, 6개월 가까이 제가 업무에서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태규 부위원장 한 사람으로 사실상 직무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 그때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글로벌 테크에 대한 과징금도 저희가 심의 의결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제가 정확한 액수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수백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도 저희가 심의 의결을 하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미국의 행정부가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사실상 이것들이 관세협상 때문에 저희가 이 과징금을 지금 물릴 수 있을지 여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글로벌 테크에도 국내 기업에 못지 않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응을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저희는 손발이 다 묶였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셨으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탄핵심판에서 물론 4 대 4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 얘기는 2인 체제로 최소한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법부 판단에 따라서 엇갈린 판단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2인 체제를 5인으로 복구시킬

생각은 않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이 기관을 무력화시키는 지…… 저희 기관의 직원들이 정말 자괴감을 느끼고 최근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떠나고 싶다는 의견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5인 체제 복구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박충권 위원 5인 체제 복구하면 지금 자기들 불리하니까 복구 안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민이 다 알고 계십니다.

○위원장 최민희 자기들이 뭘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도대체 왜 복구를 시키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1분 더 드리세요.

○박충권 위원 그러면 지금 이진숙 위원장님 1인 그리고 대통령 몫 부위원장 1인 그리고 여당 몫 1인, 야당 몫 2인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야당 측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5인 체제를 복원시키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지난번에 최형두 간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에서 2명, 국회에서 2명 추천하는 것을 야당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 사실상 민주당과 합의를 해서 결정하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사실상 협의가 아니라 합의를 해서 상임위원들을 선출한다면, 선임을 한다면 저는 문제없이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 정신에 맞게 5인 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충권 위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자기들 불리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회 구조가 만들어질 것 같아서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도 않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정법을 또 발의한 것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다르지도 않은데 위원장을 내쫓고 새로 방통위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또 공청회를 9월 5일 날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정말 이런 폭거가 어디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이진숙을 축출하기 위해서 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기요, 그만하시고요.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고.

박충권 위원님, 자기, 자기 하지 마세요. 정답니다.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겸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과 자료 요구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2분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저도 2분 주십시오.

○김현 위원 아까 최형두 간사 30초 쓴 것 저 안 썼으니까……

○위원장 최민희 30초 썼으니까 1분 30초……

○박정훈 위원 언제 썼어요? 마이크 주지도 않았잖아요.

○위원장 최민희 2분 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다시 해 주십시오, 2분.

○위원장 최민희 위원장님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2분, 2분 드립니다.

위원장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김현 위원 여야가 추천하지 않아서 귀책사유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최형두 간사의 지적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추천해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못 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략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야 추천하는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해서 여야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 과거를 잊고 그냥 얘기하지 말아 주기를 바라고요.

자료 요구는 지금 빅테크 관련해서 일을 못 했다고 방송통신위원장께서 얘기를 하는데 빅테크 관련해서 어떤 심의 의결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 오늘 2시까지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제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야당도 법안을 발의하십시오. 법안을 발의하지 않고 동료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또 하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얘기하는 것도 정치행위입니다. 지금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고위공수처에도 고발이 돼 있고 영등포경찰서에도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된다면 본인 스스로가 좀 겸손하게 답변을 하도록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주의 내지는 경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개인의 정치적 발언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면 사무처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물어나 보고 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사무처 직원들에게 입장을 묻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시만요. 이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처장 한번 나와 보세요.

사무처장님, 지금 국회 논의에 대해서 방통위가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이 한 답변이 저희로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이 세상은 방통위원장 중심으로 돌지를 않아요. 그런데 뭐든지 본인 중심으로 답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한두 살 먹은 어린이도 아니고 다 성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김현 간사님 말대로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될 일도 아니어서 중요한 건 방통위원회 조직 사무처는 국회 논의를 반대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사무처는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논의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성인이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간난신고를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던 유아기를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하라 그래도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야이고 정파적으로 다른 입장이지만 용어 사용에 있어서는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 위원 잠깐만. 그 얘기가 2소위 때 사무처장직무대행이 나와서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위원장의 발언과 모순이 생기고 배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훈 위원 그러면 공개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뭐라고 얘기해요? 뻔한 얘기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

○김현 위원 끼어들고 있어요……

박정훈 위원, 끼어들지 마세요.

○박정훈 위원 본인이 끼어든 거예요, 지금.

○김현 위원 아니, 위원장한테 얘기하고 있었어요, 지금.

○위원장 최민희 위원장이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정훈 위원 진행하세요, 빨리.

○최형두 위원 자, 진행해 주세요.

○김현 위원 없을 때는 참 잘되던데……

○최형두 위원 이제 그만하세요.

○김장겸 위원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위원장 최민희 위원장이……

○노종면 위원 말은 좀 짧게 하지 맙시다. 왜 그래요?

○박정훈 위원 가만히 계세요.

○김현 위원 왜 김장겸 위원님까지 끼어드세요?

○박정훈 위원 아니, 다 드러난 얘기를 갖고……

○김현 위원 아니, 박정훈 위원하고……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노종면 위원 왜 반말을 자꾸 하나고요, 일이 커지잖아요.

○김장겸 위원 또 그래요, 또 그래.

○김현 위원 김장겸 위원님, 손가락질 마세요.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김장겸 위원 김현 위원,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요!

○김현 위원 손가락질하지 마시라고요!

○김장겸 위원 손가락질 지금 안 하게 됐어요?

○김현 위원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최형두 위원 자, 제가……

○김장겸 위원 김현 위원만 조용히 하면 돼요.

○김현 위원 김장겸 위원님,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최형두 위원 그만하세요,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최형두 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안 드리고 싶어요.

○김장겸 위원 손가락질 좀 안 하게 해 주세요, 안 하게 해!

- 김현 위원 손가락질 마세요. 반말하지 마시고요.
○노종면 위원 아니, 왜들 그렇게 반말들을 하세요, 하다가 중간에.
○김현 위원 손가락질 마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최형두 위원 그만합시다, 이제.
○위원장 최민희 정회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의사진행 2분 있었는데……
○위원장 최민희 그냥 진행합시다. 그만하고 진행합시다.
○최형두 위원 오늘 회의 몇 시에 마칠지만 좀……
○위원장 최민희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는 상황 보고……
○최형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오늘 결산이라 그래서 우리 공직자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대개는 오후에 일찍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짐작이라도 좀 해야 안 되겠
습니까? 어떻게 할지……
○김현 위원 저녁은 안 먹겠지요.
○최형두 위원 원래는 결산이기 때문에 현안질의도 결산과 관련된 것만 해야 되는데……
○김현 위원 한 바퀴는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최형두 위원 한 바퀴입니까, 위원장님?
○김현 위원 아니, 일단 한 바퀴를 돌고 심사에 대한 기본 저기는 있어야지요. 한 바퀴
도 지금 못 돌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 최민희 아니, 두 분이 논의를 좀 하시고요.
○김현 위원 그러니까 한 바퀴는 돌고요.
○최형두 위원 한 바퀴 돌고 할까요?
○김현 위원 돌고 하면 5시쯤……
○최형두 위원 내 이야기는 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분 드리세요.
○최수진 위원 최수진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어제 오후 5시 반에 과방위 행정실에서 회의 일정 변경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
청회 계획서가 안전으로 추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오늘도 회의 시작 10분 전에 질
의 순서가 행정실에서 이메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과방위 회의 일정
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너무 일방적이고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서는 이 건에 대해서 좀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두 분 간사님께서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사전에 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법인카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3일이나 청문회도 진행했고 그때도 빵 청문회로 법인카드 이슈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법인카드에 대해서 그만 얘기하고 싶어도 계속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인카드로 개인적으로 소고기 사 드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사 먹은 적 없습니다.

○**최수진 위원** 초밥, 과일 이런 거 사 드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기본적으로 저는 고기는 먹지 않고 초밥을 집에서 시켜 먹은 적도 없고 과일을 사서 제사상을 차린 적도 없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리고 정말 세탁비에 쓰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전혀 없는 일입니다.

○**최수진 위원** 그리고 심지어 법인카드로 국회의원 배우자 모임에서, 공적인 곳에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이런 걸 통해서 기소하고 항소심까지 유죄를 받거나 그런 사례도 실제로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꾸 법인카드에 대해서 이렇게 물고 뜯고 늘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뭘 사용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수십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MBC 창사 65년 이래 자발적으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한 사람은 저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적으로 쓴 것이 없고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다는 자신감 때문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7년에서 10년 전의 일을 건당 이것은 어디서 썼느냐,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데 지금 그 일은 제가 고발을 당한 것이지 어떤 혐의가 드러나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에 고발을 당해서 지금 수사·조사를 받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서 빵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이제 경찰 수사에 좀 맡겨 놓고, 경찰 수사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대통령실 직권면직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경찰에 어떤 기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기소를 해서 문제가 된다면, 지금 EBS 유시춘 이사장의 경우에는 기소를 받아서 재판 중입니다. 같은 잣대라면 유시춘 이사장은 이미 오래 전에 직권면직이 됐어야 할 것입니다.

○**최수진 위원** 공무원의 중립적 의무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되자마자 이틀 만에 탄핵했고 탄핵도 모자라서 직권면직 지금 그런 걸 합니다. 최근에 김어준 행사에 총출동을 하셨지요. 김민석 총리후보자도 가셨고 정청래 대표도 가시고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가시고 강훈기 비서실장도 갔습니다.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 거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가서 가지고 거기서, 그것도 면직 상태에서 가신 걸 가지고 지금은 아예 주의를 받은 사항을 가지고 지금 면직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곧 통과될 것 같은데—사실 거기에서도 보면 5인이나 7인이나 뭐가 다른지? 그리고 여당에서, 야당에서 실제로 4명을 그 인원수에 따라서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가 잘 돌아갈 것 같지도 않고, 기존 것을 바꿔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방통위가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우선 인구 3억 3000에 이르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 FCC의

경우만 하더라도 위원이 5명입니다. 연방 FCC의 경우에는 과기정통부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거대한 조직으로, 거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은 5명입니다. 민주당이 거대 야당 193석에 이르는, 다른 야당까지 포함을 해서 193석에 이르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을 통과시킨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기구가 다시,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구가 생기겠지만 여야 협의를 통해서 여야 모두가 합의하는, 동의하는 그런 기구가 생겼으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지금 그 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자체를 국가직 공무원으로 해서 인사청문회에, 실제로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 놔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앞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방송 3법부터 시작해서 결국 정권 입맛에 맞는 그런 임명을 할 것이고 실제로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또 탄핵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든 방송 3법 그다음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2인 체제 의결이라는 명분하에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돌려준다, 이런 허울 좋은 얘기들 속에서 이미 방송은 죽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예전에는 그것을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때 진행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불법 소지가 있으니 합법적으로 하겠다, 지금 그 얘기고요.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법 개정의 목적이 어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제재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표적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법적으로 평등권 침해를 비롯해서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원칙을 기반하는 거기에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권 코드 인사 논란, 공공기관의 독립성 훼손 문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진숙 위원장께서는 이런 것들의 법적·헌법적 제재에 대해서 하실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정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 있으면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위헌소송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개인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인설법, 결국은 법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해서 설계하는 것,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게 나만의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이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기관을 개편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일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의 목적이 자신들의 정치권력, 정권을 위한 것 이거는 결국 국민의 공정, 정상화 등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이슈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새로 만들어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만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여야가 모두 합의하는 그런 답을 도출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민희 최수진 위원님,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 그리고 강훈기는 누구입니까? 아까 강훈기라는 이름 얘기했는데 그거 누구 얘기한 거예요?

○최수진 위원 비서실장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강훈기가 아니고 강훈식입니다.

○김현 위원 최형두 간사, 의사진행발언한다고 그랬나요?

○위원장 최민희 좀 이따 드릴게요, 진행을 하고.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여야 합의·협의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또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통위 합의제 기구, 여야로 구성돼야 되는 기본정신을 깎고 무시하고 대통령 임명 둘이서 공영방송 이사진들을 죄다 갈아치우려고 했고 겨우 그게 법원의 철퇴를 맞아서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실행한 최전선에 섰던 사람이 이진숙 위원장이에요. 무슨 여야 합의·협의를 운운합니까, 국회에 와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정부가 특정인, 특정 조직 이렇게 겨냥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일정한 정치행위가 있지요, 어느 정권이나. 그런데 이것도 정도가 있고 또 말할 때 자격이 있다고 봐요. 특정인, 특정 조직을 타깃으로 검찰·방통위·방심위 죄다 동원해서 갖은 짓을 다 하고, 그것이 그냥 제가 정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해서 대부분이 다 되돌려졌어요. 그런 상황들 다 아시잖아요. 이제 좀 그냥 입력된 얘기를 반복하는 일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뺑 얘기, 법카 얘기, 누구보다 아마 제가 그만 얘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잊을 만하면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시고 그래서 추가로 국민들께서 잊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사실관계 확인해 드리면 또 페이스북에 장문으로 자기 해명인지 반박인지 꾀변인지를 쓰고, 저는 꾀변이라고 봅니다.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지난 8월 27일에 이진숙 위원장 본인 명의로 페이스북에, 그것도 국회에 와서 업무시간 중에 쓴 저 글에 사실관계, 선후관계, 가장 기본적인 시계열 흐름이 형성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카드 결제기록, 날짜 그리고 본인이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들,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 얘기를 기억이 돌아왔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그것도 수행비서의 멘트까지 저렇게 따옴표 친절하게 붙여서 썼어요. 저 주장은 가장 최근에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본인이 당당하게 적은 겁니다. 저것마저도 나중에 가서 ‘제 기억이 틀렸는데요’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께서 지금 빨간 줄 쳐 놓은 저 대목의 오류를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저 얘기대로면, 수행비서의 말대로면 사장님 댁 부근—이게 나폴레옹제과점입니다—여기서 구입이 먼저이고요. 그런데 모자라서 대전에 있는 곳—이거는 뚜레쥬르입니다—여기서 추가로 구매했다, 이 순서여야 해요.

이어지는 본인의 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대전에서 서울 집까지 회사 차량으로 수행비서가 데려다 줬다. 그리고 베이커리에서 과자류를 샀다, 여기서 베이커리가 나폴레옹입니다. 서울 자택 근처 거기서 사고 법인카드를 맡겼어요. 그리고 수행비서는 올라간 거지

요. 올라갔는데, 다음 날이겠지요? 모자라…… 아, 대전으로 갔습니다. 대전 갔는데 모자라서 대전에서 나머지를 구입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폴레옹의 결제가 1월 8일 대전에 가신 바로 그 당일, 수행비서랑 같이 갔어요. 오후 2시 31분 결제했습니다, 43만 9000원. 그리고 약 2시간 반 뒤 오후 5시 6분에 뚜레쥬르에서, 대전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대전으로 이동해서 53만 4000원을 결제했어요. 그리고 다시 수행비서와 함께 서울로 돌아옵니다. 이때까지 법인카드 갖고 있었어요. 이게 다 1월 8일의 얘기에요. 오후 8시 15분에 보리밥 결제했고 그리고 서울 중구로 이동해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드셨어요, 오후 8시 41분에.

지금 저 글하고 어떻게 하나도 안 맞습니까? 그게 지금 기억이 돌아왔다고…… 대답하라는 거 아니에요. 운전기사의 기억을 들은 건지 아니면 본인이 기억해 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조사 이런 식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그 뚜레쥬르 가서, 53만 원어치 산 데 가서 실제로 구매해 봤잖아요. 사퇴 의사 표명한 날, 그날 쓴 때로부터 가격이, 물가가 올랐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이 얘기하는 롤케이크 1만 2000원이더군요. 저희들이 물건별로 다 사 봤어요.

다음 것 보시겠습니다.

비싼 게 있긴 있어요. 케이크류, 수십 명 고생했다고 인사차 선물로 사는데 케이크를 사셨을 리는 없겠지요, 움직이는 과정에서 흔들릴 수도 있고. 혹시 케이크 사셨습니까? 아니겠지요. 그렇다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롤케이크 그리고 무슨 쿠키류.

아니, 4만~5만 원짜리 존재하지 않는데 왜 있다고 자꾸 우기는 건지 모르겠어요. 회화화한다고요? 우습잖아요, 이 상황 자체가. 그런데 이 정도 얘기하면 본인이 기억이 안 나보다 그래야지 계속 업무용으로 썼다, 이제 기억이 돌아왔다…… 개인적으로는 경찰에서 계속 이렇게 진술하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이 명백히 드러날 테니까. 그리고 경찰 믿으시는데, 경찰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분 더 주실 건가요?

○위원장 최민희 예, 다 드렸습니다.

○노종면 위원 저희가 지금 소액 얘기 하니까 소액만 가지고 그러는 거라고 기억이 왜 곡됐을 수 있는데 호텔, 고급식당, 유흥주점 이런 데서 쓴 내역들 수천만 원, 억대가 넘는 것들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 쓰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푼돈까지도, 1000원 짜리,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도 꼼꼼하게……

보십시오. 2017년 11월 5일 일요일입니다. 파리바게뜨, 새벽 4시 34분에 1만 6500원 이거를 업무용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여기에 신뢰를 갖겠습니까? 이런 답변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주야장천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업무용으로 썼다라고 얘기하면 믿어야 됩니까? 그게 믿음이 갑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모두 업무용으로 사용했고 경찰조사 받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상입니다.

발언을 좀 중단시켜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권을 얻지 않고 저렇게 규칙을 어기는 건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불편하고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제가 30초 더 드릴게요. 계속하세요.

○**노종면 위원** 경찰을 믿는 것 같은데, 믿을 만합니다.

한번 보시지요.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믿을 만해요.

YTN 증인들, 우리 과방위가 6명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이 대검에 접수된 날이 2025년, 올해 1월 17일이에요.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한 번도 조사받지 않았어요. 나머지 김백부 터 정철민까지 한 번씩 조사받았습니다. 저는 형식적이라고 봐요.

죄목별 송치·불송치, 대부분 불송치거나 수사 중입니다. 송치는 단 한 명.

그런데 송치된 한 명보다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한 배석규, 해외 도피 의혹이 있는 유경선, 김백 등 이자들은 여전히 수사 중이에요.

다음 것 보시겠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누구보다 국회가 지켜야 하는, 존중해야 되는 저 법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돼요. 그런데 대검이 받아서 경찰에 넘기고 경찰이 수사 안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는 이 당연한 의무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해 주시고 과방위 차원에서 검찰과 경찰의 입장을 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겸 위원** 이진숙 위원장님, 오늘도 도돌이표로 사퇴 압박이 거셉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바는 범인카드를 마음대로 썼다, 그런 혐의가 있다 그래서 사퇴해야 된다. 두 번째는 당신 정치할 것 아니냐, 출마할 것 아니냐, 그런 의도를 가졌으면 사퇴하라 이런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른바 문재인 정권에 이어서 이재명 정권의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이진숙 찍어내기가 점입가경인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퇴 압박이 없었던 전현희 의원의 말과 달리 대통령실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퇴를 노골적으로 요 며칠 사이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거론됐지만 우상호 정무수석이 전국 민영방송 특별대담에 출연해서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아까 거론했듯이 본인이 강원지사에 출마할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 훼손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인용했는데 같은 것

대로 하나하나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대통령 법인카드 유용 의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배 모 씨와 당시 경기도청 공무원이었던 제보자가 나누었던 텔레그램 내용입니다. 사진에는 이재명 부부가 소고기와 초밥 등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카드 결제한 사람은 다른 공무원이었지요—실제로 이재명 부부가 사적으로 소비한 정황이 이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 초밥, 과일 등 음식 비용을 사적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공소장에 써 있습니다. 이 가운데 김혜경 여사는 2021년 8월 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 모임에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해서 향소심까지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공익제보자는 회고록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마르고 닳도록 긁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법인카드 마르고 닳도록 긁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사적으로 쓴 것이 없고 업무용으로만 사용했습니다.

○**김장겸 위원** 이진숙 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사용이 문제라면 이분 표현대로 혈세를 마르고 닳도록 긁어서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은커녕 대선후보가 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 기소되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기소되지도 않았고 사실상 지금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장겸 위원** 아까 지적했듯이 유시춘 EBS 이사장 이분 보시지요. 업무추진비 1600여만 원 유용해서 기소돼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유시춘 위원장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분은요 문제인 정권 때 임명됐어요, 김유열 EBS 사장과 함께.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훼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면 전현희 의원은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전현희 의원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의뢰 이런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버텼습니다. 이게 이진숙 위원장하고 비교하면 결코 낮은 수준의 처분이 아닙니다.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사퇴해야 된다…… 아까 말씀했듯이 임기를 지키면 내년 8월까지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습니다.

○**김장겸 위원** 출마할 수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없습니다.

○**김장겸 위원** 아니,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셨는데 김민석 총리는 내년 서울시장,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원도지사, 전재수 해수부장관은 부산시장, 강훈식 비서실장은 충남지사

에 각각 출마할 것, 이것은 다 우리가 언론이나 어디서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논리라면 이분들 다 사퇴해야지요.

그리고 임기를 지키겠다는데, 임기를 지키면 출마할 수도 없는데, 내년 6월이 지방선거 아닙니까?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지키면서 어떻게 출마할 수가 있습니까?

전재수 장관 한번 봅시다.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부산시장 출마 여부를 여러 의원들이 물었습니다. 제대로 답 못 했어요. 안 나간다고 딱 부러지게 말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논리라면 이진숙 위원장께서는 임기 지키면 출마할 수도 없는데 이것 가지고 계속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직권면직 운운하면서 사퇴하라, 이것은요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아니, 방통위원장 재임하면서 출마 의사 직접 밝힌 적이 있어요,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일관되게 제 임기를 지켜 달라, 법정 임기는 내년 8월까지 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이것 억지 명분을 들어서 직권면직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고 이것은 찍어내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직권면직을 검토 중이었다 이렇게 발언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민주당 과방위원들 중심으로 제가 경찰에 고발당했는데 경찰에서 대통령실의 이런 발언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제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 저는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장겸 위원**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안이 오늘 상정됐는데……

PPT 한번 보시지요.

우리가 이것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였다가 다시 소위원회를 거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이걸로 바꿨다는데 이것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유가 능동적 대처 이런 것을 들었다고 그러합니다. 진흥과 규제를 일원화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 일원화할 거냐 이원화할 거냐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최형두 간사가 지적했듯이, 2008년도 보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할 때 여러 특위를 꾸려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2소위를 거치면서 졸속으로 이름까지 그냥, 그전에 들었던 바가 없이 제정과 개정 이렇게 합쳤던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해서 공청회 해서 졸속으로 만들면 그게 이진숙 찍어내기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송 3법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 여야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아마 현재의 방송 3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허점을 상당히 보완할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역시 공청회를 한다고 합니다만 공청회도 수차례 충분한 공청회를 거치고 바람직하다면 여야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장겸 위원** 저는 1분 더 안 줍니까?

○위원장 최민희 했습니다. 이미 드렸습니다.

○김장겸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오늘 결정한 건 공청회고요 법안은 26일 상정됐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안이 5월에 상정됐고요, 26일 날 상정됐습니다. 오늘은 공청회 결정을 한 거고 제정법 공청회는 한 번 하게 되어 있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희 위원 이진숙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오늘 오전에 예결산소위에서 의결한 심사 결과 내용 좀 보셨을까요? 방통위 부분 그렇게 길지 않던데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이주희 위원 그중에서 연번으로는 12번이고 페이지로 7쪽에 있는 팩트체크넷 관련 사업 지적사항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 질의시간에도 한번 여쭙보기도 했었는데 지적사항 첫 번째를 보면 ‘2023년 주 사업수행 주체인 팩트체크넷이 해산되었음에도 2024년 예산을 편성하여 실집행이 1200만 원에 그쳤고 결국 사업을 중단하여 다수 불용되는 등 수행 주체와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이 부분 동의 하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2023년 1월에 팩트체크넷이 해산한다고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팩트체크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겠다 해서 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됐고요. 다만 2023년에 해산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주희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4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국엔 방통위가 제대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서 불용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해산이 사유라기보다 그 해산의 원인을 제공한 게 방통위라는 취지거든요. 이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23년도 초에 팩트체크넷이 해산한 것도 국민의힘이 부당하게 편향성과 공정성을 지적하고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산이 크게 줄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게 지금 당사자들의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계속……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지금 마지막 이견 청취를 하고 있으니깐요……

○이주희 위원 예, 충분히 의견 청취하시고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적사항 한번 계속 볼까요?

‘팩트체크넷 사업은 사업비가 일부 집행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중단되었으나 방통위가 일부 금액 환수조치와 함께 300%에 달하는 제재부과금을 부과했다. 이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우려와 정치적 견해에 따라 위법성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고 공적 사업에서 예산 환수와 제재는 엄격한 법적 근거와 객관적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특정 정치적 상황에 맞춰 선택적으로 적용된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희가 제재부과금 300%를 부과한 것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 팩트체크넷 쪽에서 이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최종 결과를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위원** 어제 국회에서 유튜브·포털 뉴스 댓글 허위조작정보 시민피해 구제 및 민주주의 훼손 예방을 위한 정통방법 개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신영규 국장님 이 자리에 출석하셨지요?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이주희 위원** 위원장님, 혹시 어제 토론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국장님 참석해서 무슨 이야기 하셨는지 그리고 여기 빠띠 대표도 참석했는데 어떤 이야기 오갔는지 들으셨나요? 예, 아니요로 짧게만 답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주희 위원** 나중에 꼭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님께서 기존 팩트체크넷 사업은 편향적이었다거나 성과가 없었다는 논란이 있어 민간을 지원하는 것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발언하셨어요.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팩트체크넷 관련해서는 민간에서 100% 재정도 부담하고 팩트체크 활동을 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했던 것은 민간에서 재정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까지 일종의……

○**이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능력을 가질 때까지 마중물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주희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방통위가 그 마중물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진행했던 민간사업을 빼앗았다는 형국이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때의 팩트체크넷 사업이 편향적이었다거나 성과가 없었다는 논란이 있다’ 이 주장은 사업 당시에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방통위의 논리가 됐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방통위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주장을 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면…… 그리고 이게 빠띠 측의 주장이기도 한데요.

지금 PPT 보시면, 정치 분류 팩트체크 콘텐츠는 사실상 1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실질적인 데이터와도 맞지 않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리고 팩트체크넷이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 인증이나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의 데이터 연동 등을 협의하면서 들은 피드백도 이 주장과는 전혀 배치됩니다. 한마디로 팩트체크넷은 편향적이지도 않았고 그 성과도 적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PD연합회·빠띠가 새로운 공익재단을 만들었고 심지어 팩트체크 주제마저도 시민 제안과 전문가들의 협의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장하셨던 그런 바람직한 시민 모델, 민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을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예산을 삭감하더니 아주 답정너처럼 표적감사를 실시해서 무리하게 지금 조치 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빠띠를 비롯한 민간기관에

만 환수금과 제재부과금 부과하고 검찰에 지금 고발까지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 처분과 고발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적사항 한번 다시 좀 볼까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빠띠가 진행한 팩트체크넷 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대해 인건비과다 책정을 이유로 보조금 환수조치, 제재부과금 처분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빠띠는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진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방통위의 관리 감독 책임이 크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고통을 지금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됐던 방통위 관련 직원들, 담당자들 혹시 조치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일부 관련자들에게 대해서는 징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주희 위원** 그 자료 우선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1분 더 드릴 수 있는데……

○**이주희 위원** 시간이 된 줄 알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범 위원**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신성범 위원입니다.

오늘 원래 2024회계연도 결산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현안보고가 들어와서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보니까 이진숙 위원장님의 진퇴 문제가 왜 아직도 이렇게 우리 상임위를 뒤덮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이진숙 위원장님, 직권면직은 가능한 것 아니에요? 어차피 정치적 임명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판단해서 안 되겠다 하면 직권면직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직권면직의 사유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직권면직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보니까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심해서 한다. 그런데 왜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면 될 걸? 말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 이유는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성범 위원** 그래서 하여튼 직권면직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하는 행태나 이런 게 다 뭐가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직권면직을 할 수 있고 하는 게 마땅하다. 안 하는 건, 왜 안 할까라는 부분은 따로 별도로 이유가 있겠지요.

두 번째는 지금 방통위원회를 어떻게 개편할지, 정부조직과 연동돼 있는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여당 의원들이 낸 법이 통과돼서 방통위가 없어지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통위라는 이름은 없어집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면 그때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여당 의원들이 낸 법안 말이에요—이름이 바뀌고 내용이 달라질 텐데 그때는 이진숙 위원장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돼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현재까지 보도에 따르면 정무직공무원은 자동 면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어가 해임인지 면직인지 정확히는 모르나.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낸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이진숙 위원장은 그만두게 돼 있다. 그런데 왜 자꾸 빨리 그만두라고 난리를 부리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확인해 볼게요. 지금 기사를 내가 우연히 보니까 대전 유성경찰서에 가서 7월 달에 5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그 후로도 조사를 받으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받았습니다.

○**신성범 위원** 몇 번, 몇 시간씩 어떻게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 기억으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조사를 세 차례 받았습니다.

○**신성범 위원** 세 차례? 언론에 보도된 7월 5일 이후에도 세 차례?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후에 두 차례, 총 세 차례 조사를 받으셨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신성범 위원** 궁금한 게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에서 2018년, 10년에서 7년 사이 일인데 우리나라 경찰이 수사를 잘하기 때문에 가서 조사를 받아 보시니까 어디까지 조사가 다 돼 있어요? 법인카드는 그냥 내역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수사, 경찰조사 관련한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히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돼서……

○**신성범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여쭙볼게요.

이 동안에 썼던 법인카드 사용처, 금액, 시간 이런 것 다 현출돼 있을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뭘 썼는지 기억이 나면 여기 언제 갔느냐고 해서 캐물었을 테고 기억나는 대로 ‘여기는 누구하고 간 것 같다. 뭘 샀다’고 다 소명을 했을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리고 법인차, 사장 관용차 조사도 다 돼 있습니까, 운행 내역 이런 것도?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주로 법인카드 사용처 이런 게 다 나왔을 테고. 그리고 MBC에다 요청을 해서 경찰에서 뭘 다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알기로 보도된 바에 따르면 강제수사를 몇 차례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대전MBC 사장실이라든지 총무국이나 여기에서 사장이 썼던 모든 걸 다 가져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관련 자료는 강제수사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수사의 시작은 우리 국회의 과방위원들이, 특정 정당의 과방위원들이 고소·고발한 데서 시작됐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습니다.

○신성범 위원 아니면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양쪽에서 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면 현재 혐의는 뭐예요? 청탁금지법, 업무상 배임, 뭐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것까지?

그러면 진짜 조사를 열 몇 시간씩 세 차례 받았을 텐데 또 경찰은 언제 나오라고 돼 있어요? 언제 또 조사를 받을 예정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조사 관련한 사안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면 혼자 잡니까, 아니면 변호인을 대동하고 가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변호인과 같이 잡니다.

○신성범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조사를 받고 있고 경찰에서 하나하나 안 놓치려고 굉장히 세밀하게 수사를 했고 조사를 하고 있을 것이고 결과에 따라서 검찰의 지휘를 받고 기소로 가든지 아니든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 처분은 언제 내려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신성범 위원 아니, 분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쭉 이야기하다 보면?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다만 최근에 저에 대한 직권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도 그런 사실을 의식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당 위원들께서 문제 삼고 있는 것, 빵을 이렇게 많이 사 가지고 결국은 다르게 이용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사적 유용은 없으시다 하니 사적 유용이 아니냐 하는 부분도 경찰서에서 밝혀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해석의 여지가 또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수사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고 또 밝혀내야 한다 또 밝혀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출마 이야기가 오전에 나왔다는데 본인이—지금 정치 상황에 따라서 모르기는 하지만—선출직에 출마할 생각은 갖고 계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일관되게, 제 임기가 마쳐지면 출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신성범 위원 임기가 중간에 끊어지면?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일관되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정해진 공공기관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의 임기는 마쳐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1분 더 드리세요.

○신성범 위원 아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끝나셨어요?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오늘 결산 보고인데 직권면직 얘기가 자꾸 나와서 이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방금 전에 질문에 대한 답을 출마라는 질문이 나오면 일관되게 임기를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돌려 말하지 말고 그래서 출마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제 임기를 마치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이해민 위원 돌려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정도는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걸 묻겠습니다.

방통위는 독임제 기구입니까, 합의제 기구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합의제 기구입니다.

○이해민 위원 그렇지요. 잘하셨어요.

아까 전한길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알게 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얼마나 된 지 모르고 이 자리에서 그걸 밝힐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민 위원 그러면 대구시장 양보한다는 전한길 씨의 발언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 대답은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민 위원 그걸 못 하세요? 지난주에 KBS 박장범 사장도 자꾸 왔다 갔다 대답을 못 하던데 이진숙 위원장도 그걸 배웠나 보네요. 저는 이걸 알파한 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대답을 들으신 대로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지요. 대한민국 행정조직은 크게 두 가지 형태, 독임제·합의제 기구로 나뉩니다. 독임제는 장관, 지금 과기정통부장관님 나와 계시는데 장관같이 1명 책임자가 모든 결정 신속하게 내리는 체제입니다. 정책 집행 효율성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합의제는—문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올 것 같아요—위원회처럼 복수 구성원들이 토론하고 협의 거쳐서 결정을 내리는 체제지요. 의견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공공·공정성과 중립성 확보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방통위는 그런 합의제 기구의 전형적인 기구고요.

방송과 통신이라는 민감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 다루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정치적 성향,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치적 성향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 내려야 하는 책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통위는 그 존재 이유인 중립성을 잃어 가고 있어요.

이진숙 위원장은 아주 여러 번 특정 정파에 치우친 발언하고 행보로 논란이 됐습니다. 감사원에서 이 위원장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식적으로 판단을 했지요.

전한길에 대해서는 상임위 여기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한다, 알파한 중립 지킬지언정

방통위의 중립성은 지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로서의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훼손한 위원장 면직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의 직권면직 언급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압박이 아니라, 경찰조사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좀 전에 이야기한 그 근거에 따라서요. 이걸 특정 이진숙이라는 개인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적 기관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결산소위에서는 지난주 소위에서 이견이 있어서 처리되지 못했던 결산 내용들을 처리했는데 그중에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출장비 관련된 일이 있었습니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는 결산 시정요구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변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주희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팩트체크넷에 대해서는 방통위에 대해서 그다음 단계인 징계가 시정요구로 들어갔다는 것을 국민께 알립니다.

저는 작년에 국정감사 할 때 방심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었어요. 그리고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결산에서 반드시 짚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고로 작년 결산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2023년도 결산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언급이 됐었고요. 오늘은 2024년 결산이니깐 지난해 이후 그사이에 류희림 위원장의 위증 이슈까지 있었다는 것도 알려 드립니다.

결산 보고하고 심의하는 건 국회가 정부 지출내역 꼼꼼히 따지고 거기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는 단계지요. 이걸 통해서 문제 재발 방지하고 세금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이진숙 위원장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걸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 세금 쓰는 거라서.

오늘 국회 과방위 예결소위에서는 KBS·EBS 부분에 대해서 아직 기관에서 준비가 안됐다고 해서 심의를 안 했는데 그중에서—방통위에서도 들으세요—KBS는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내지 않으면 조금 전에 방심위처럼 결산 심의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KBS 박장범 사장은 KBS 결산에 대한 자료 요청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출 안 하면 곧 있을 결산 심의 그리고 다가오는 국정감사,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될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보안 부분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었습니다. 저는 그 결과물들을 지금 정권이 뒤집어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요. 지난번 SKT 해킹 사건 누락 대응 때문에 소비자 피해 이미 보셨을 거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예를 들면 KT하고 LG유플러스에 대해서 정밀검사 못 한다 이런 이야기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에스24 보안 이슈 계속 나오고 이제는 금융 부분인 롯데카드 해킹 이슈까지 생겼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해킹 이슈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조사하고 모니터링 그리고 제대로 된 보안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국감 때 제가 보안 거버넌스 포함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짚을 예정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이번에 공정위 쪽에서 이 부분을 본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

쫓이기 때문에. 하지만 전문기관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과기정통부에서 반드시 모니터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개선책까지 함께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읍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오늘 이진숙 위원장 답변을 보면 법과 상식,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버젓이 하고 있어요. 직권면직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심각하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제가 왜 저렇게 답변을 할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서 1년 전에 인사청문회 때 생각을 해 보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저렇게 답변하는 게 이해가 갔어요. 짧은 영상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 상영)

중단해 주세요.

저는 저날 저걸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대전MBC 직원들 94%가 반대하고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답변이 ‘나머지 6%가 있고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는 오늘 답변하는 걸 보면 ‘아, 이 정신세계에서 답변을 하는구나. 그리고 일부 극소수의 전한길 같은 극우를 보고 모든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는구나’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혀 상식에 안 맞아요.

맞지 않아요? 6% 보고 이렇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지 않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영상, 오늘 계속 궤변을 늘어놓는데 정치적 중립 위반을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영상 다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런 얘기를 했어요. 저 때가 어느 때냐 하면 탄핵 소추 중이에요. 탄핵 소추 중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저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저 옆에 계신 과기부장관님이…… 상상이 가세요? 저런 얘기 했으면 당장 그만 두셨을 거예요, 그러지도 않을 분이지만. 아니,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더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다른 유튜브에 출연해서, 배승희의 라이브 신나는 아침,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직 방통위원장이.

그리고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아니,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것도 탄핵 소추 기간에 저런 발언을 해 놓고 다른 장관이나 고위공직자하고 비교해서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고 자기는 면직될 이유가 없다고…… 여기 장관님이나 차관님들, 공직자들 많이 계세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요.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 국민이나 상식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다른 분들은 이틀 만에 탄핵당하지 않았습니니다.

○**이훈기 위원**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정치적 중립 위반,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 그리고 65조 정치운동 금지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감사원은 먼저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이었어요. 상당히 편파적이고 편향적이라고 문제가 심각했던 감사원에서조차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을 했어요. 만약에 지금 감사원에서 제대로 감사했으면 엄청나게 강한 징계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도 면직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생각지 않습니다.

○**이훈기 위원** 예?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직권면직을 당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훈기 위원** 과기부장관님께 물어볼게요. 이런 상황이면 장관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 드려 갖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고위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데 최우선을 뒀야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훈기 위원** 혹시 전한길 씨가 얘기하는 대구시장 출마할 생각 있어요, 이진숙 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이 자리에서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훈기 위원** 이진숙 위원장은 대구시장이…… 정치를 위해서 방통위원장 자리를 이용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출마 않겠다고 당당히 밝혀야 돼요, 여기서.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 임기를 마치면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이훈기 위원** 지금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는데 이렇게 들려요. 나는 남은 임기를 마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직권면직이 되면 보수의 여전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 이런 그냥 꽃놀이패예요, 꽃놀이패. 그렇지 않아요? 임기 채우든지 아니면 직권면직당하면 보수 여전사 타이틀 갖고 대구시장, 전한길이 밀어주는 국민의힘에서 대구시장 출마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이훈기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훈기 위원** 그러니까 극우 6%의 생각만 믿고 고위공직자가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대한민국에 극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훈기 위원** 오늘 국민들이 다 봤을 거예요. 이진숙 위원장이 어떤 사람인지 더 확실히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랬을 것 같아요, ‘저 양반은, 저분은 정말 6%만 있어도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1년 전에 인사청문회 할 때 이런 지적을 했어요. 세월호 전원 구조의 세계적인 오보를 낸 책임자가 이진숙 위원장이예요, 그때 MBC 보도본부장 시절에.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공정성을 지켜야 될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으면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방통위원장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MBC에 있을

때 있었고 지금 고위공직자로서 저런 정도의 일을 해요.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얘기, 그런 표현 쓰는 건 되게 안 좋지만 꽃놀이패처럼 내 임기를 안 채우고 채워 주면 임기 마치고 그렇지 않으면 면직 한번 시켜 보라, 면직시키면 내가 보수 여전사로 대구시장 출마하겠다. 누가 봐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국민들 다 읽었을 거예요—국민들이 오늘 이 자리 보면서—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속마음 그런 것 아니에요? 속마음 다 들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러면 출마 안 하겠다고 여기서 당당하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대구시장 출마 안 하겠다고.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일관되게 법에 정한 제 임기, 2026년 8월까지의 제 임기는 지켜져야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훈기 위원** 이진숙 위원장은 민주주의와 법과 원칙,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럴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평가를 못 해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오늘 오후 회의에는 배정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서 참석해 계십니다. 소개가 늦었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영 위원** 김영관 사무처장대리님 나와 주십시오.

사무처장대리께서는 현재 고위공무원이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김우영 위원** 언제부터 근무하셔서 지금까지 몇 년간 방통위에 계신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공직 생활은 9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품위라든가 중립 의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 잘 알고 계신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김우영 위원** 특히 방송 분야는 그 어떤 공무원 조직보다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모든 공무원은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영 위원** 방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방통위원회 설치의 목적, 혹시 기억나고 있는 대목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제가 전체 문장은 기억 못 합니다마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이나 이용자의 권익 보호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무슨 법인카드 문제,

과거의 그러저러한 문제보다 딱 업무 시작과 동시에 이틀간의 과정에서 방통위가 그 목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보장 그 자체가 생명과도 같은데 그걸 위반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그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한테 묻기는 그거하고 공무원을 오래 하신 김영관 사무처장대리께 묻겠습니다. KBS나 공영방송 전반적인 운영 상황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업무가 있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체크를 계속 사안별로 할 수는 없지만……

○**김우영 위원** 중요한 사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김우영 위원** 방송의 공익성과 독립성과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작년 8·15 때 0시에 KBS가 기미가요가 나오는 특정 방송을 틀었다 해서 문제가 된 적 기억나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기억합니다.

○**김우영 위원** 그때 KBS에 대해서 방심위는 기관 주의, 행정지도 조치를 취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제가 그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김우영 위원** 방심위의 심의 제재에 관한 사항의 집행은 방통위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박민 사장은 여러 차례 KBS가 시청자에게 불쾌한 그런 감정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사과 조치는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의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우영 위원** 이 대목에서 제가 무슨 제보를 받은 녹취록이 있어서 잠깐 PPT에 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녹취록은 KH그룹이라고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조작, 로비 사건의 진술자이기도 한 사람이 어디에 나와서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내용입니다.

‘KBS센터장 한경천이라고 있다. 현직 센터장이다. 이제 일을 또 중간 심부름을 제가 시켜서 많이 했고 그 당시에 KBS 사장이 박민이었다. 박민이 청문회에 나와서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연속으로 차기 사장 자리를 차고 나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박장범으로 바뀐 거예요, 박장범으로. 청문회에 가서 말 한마디 잘못해 갖고요. 왜 MBC는 이렇게 대처를 하는데 KBS는 왜 이렇게 하나 이러는데 그 대답을 잘못된 거예요.

야당 의원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도 그냥 연임이 된 거예요. 결정이 났어요. 용산에서요. 윤석열이와 박민이하고 굉장히 좋았거든요. 수시로 불렀어요.

사실 용산에서, 그런데 연임 결정 나는가 싶었는데 박민이 잘못하는 바람에. 바로 기다려. 그다음 날 전화 한 통화로 잘리고 박장범한테 가는 길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최재혁이가 이제 홍보 쪽 비서관이거든요. 그 최재혁이가 관리하고 있었지요, 그 당시에’.

이 대목은 KBS 방송사의 경영과 운영과 관련해서 용산의 기대나 바람에 맞지 않게 사장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바로 자르고 박장범으로 갔다. 이 녹취록을 근거로 봤을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법,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독립성을 위해 설치돼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무원으로서 봤을 때 이러한 용산의 방송 개입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저는 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우영 위원** 과거 독재 시절의 공보처처럼 보도지침을 내리고 사장을 마음대로 갈고 그러한 행위는, 현시대의 방통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구로 존립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그런 시대에 역행적인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방송법에 따르면 KBS 사장은 KBS 이 사회에서 정하도록, 추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제가 왜 박장범으로 바뀌었는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습니까마는 작년에 기미가요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서도 여러 차례 사과 멘트를 한 바가 있고. 또 9시 반, KBS 매체의 공신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여러 차례 사과한 것이 용산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리게 했다, 저는 그렇게 저 녹취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민은 그래서 잘렸고 이진숙은 위안부의 강제동원 사건에 대해서 논쟁적 사안이라 답변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답변 태도 때문에 그 직을 유지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헌법,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라고 되어 있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공직자가 그걸 위반한 행위를 하고도 마치 그것이 정당한 본인의 신념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까운 시간에 특정한 일탈한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의견을 대신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처장님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최민희** 이준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준석 위원** 이진숙 위원장님, 본인은 본인을 정치인으로 분류하십니까 아니면 공직자로 분류하십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정치 입문을 한번 하신 적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직자입니다.

○**이준석 위원** 사실 정무직을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정부에서도 장관 하신 분들 중에서 보면 국회의원 하셨다가 장관 하셨다가 또 퇴임하시고 한 달 만에 출마하신 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공직선거에 출마하는가 여부는 선거에 임박해서라도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본인이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결심이 서지 않았더라는 말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 임기가, 법적인 임기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희망을 피력해 왔습니다.

○**이준석 위원** 저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 박장범 사장이 왔을 때도 우리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혹시 박장범 사장의 임기를 축소시키는 형태로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었고요. 이번에도 우리 위원회가 지금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이진숙 위원장의 직에 관련된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보편과 특수을 얘기했을 때 특별, 특수이 찾아지는 순간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무너진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계엄이라는 비상사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특별검사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양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일각에서 특별재판부를 두자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필요하냐라는 또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특별에 특별이 반복되다 보면 저는 대한민국 법체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의 이야기를 들어 봐도 제가 당대표 잘릴 때 보면 하도 안 잘리니까 나중에는 당헌·당규 개정해서 잘랐습니다, 최고위원 사퇴하면 너 잘려 이래 가지고. 그걸 해낸 게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 특별, 특수에 취해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부권이라는 아주 특별한 권한을 남발하다가 결국 탄핵에 이르는 저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특수이 찾아지는 상황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이런 특별한 입법을 통해서 본인이 물러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이라고 하셔서 아직은 제가 그런 여러 가지 가정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법대로 되지 않아서 법을 바꾸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대로 되지 않아서 법을 바꾸면 그것은 법을 지배하는 것이어서 저는 독재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행법상 아주 큰 심각한 문제나 하자·흠결이 있지 않으면 현행법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위원** 마침 오늘 다른 위원회에서는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논란이 되는 후보자들이 있고……

저는 사실 정권에 따라 가지고 기준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정권마다 도덕성에 중점을 두는 정권도 있고 능력에 중점을 두는 정권도 있고.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진숙 위원장의 진퇴 문제가 언급된 상황 속에서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적어도 이번 정부에서 임명되거나 지명된 공직자들의 도덕적 기준이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보다 높아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저도 이 자리에서 청문회 3일 동안 참여해 봤지만 제가 그 단어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서 저도 그런데 뽕 관련 논란 외에는 사실 어떤 부분이 많이 회자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공직자들을 보면 음주운전부터 화려한 경력을 가진 분도 있고 결국 천안함 음모론 같은 것을 제기한 바도 있고 이런 건 한데……

저는 이런 인사의 기준이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자꾸 영점이 조정이 바뀌고 이러면 결국 그것도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진숙 위원장께서는 본인께서 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도덕적 결함이 지금 발생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 청문회에서 지적됐던 것은 네 차례인가 교통위반 과태료 낸 것 그리고 제가 워싱턴 특파원에 부임하면서 받지 못해서 재산세·주민세를 내지 못한 것, 그 2개밖에 없습시다, 제 기억에 따르면.

저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비교적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 법인카드를 갑자기 마구 사용했나……

○**이준석 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예전에 되시고 나서 지적해 드렸던 게 뭐냐면 그때 방통위원장 탄핵이 되실 때쯤 너무 인터넷상에다가 공직자로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거는 자제해 달라, 도덕적인 면은 모르겠지만 그거야말로 공정성에 있어서 본인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서 또는 직무수행 의지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의심받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람되게도 아까 다른 위원님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강하게 본인의 의견을 표출하고 맞서야 된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이 잘 판단하셔야 될 거다 그런 생각 합니다.

우리는 지금 방통 관련 업무가 굉장히 밀려 있는 상황 속에서 일하는 공직자를 원하지 그것이 지금 정치적 액션을 조금 더 한다 해 가지고 나중에 본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걸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지금 위원으로서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정치적 발언은 제가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리고 배경훈 장관님, 늦게라도 오서 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GPU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연구개발 쪽에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운영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이 흘러가면 그거는 불공정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측에서 자료를 보내 주시고 지원·배분 계획 관련해서 보내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자료가 좀 부실해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공모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지원 및 배분계획 같은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게 저는 선후관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이게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다른 방향으로 저게 전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할 거고요.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 프로젝트에 약 40% 그리고 산업계에 20~30%, 학계에 나머지를 배분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GPU 사업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GPU를 직접 저희가 구매해서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제공해 주고 저희가 학계나 산업계에 제공하는 형태 그리고 이번에 국가AI전략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SPC, 국가 AI컴퓨팅센터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제공하는, 이 SPC 사업자를 통해서 우리가 GPU를 공급할 때 지금 말씀하신 기준을 좀 강하게 잡고 저희가 전반적인 어떤 거버닝(governing) 역할을 할 겁니다.

○**이준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처음부터 지적했던 것이 민간성이 강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돈을 들여 가면서 이상한 짓을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성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은 거거든요. 그 지

점을 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단해야 되는 것이 요즘 GPU 임대 가격이라는 것이 제가 봤더니, 저도 제 개인 용도로 쓰려고 봤더니 시간당 15불 하던 게 요즘 2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경쟁 속에서 저는 이 민간성 같은 경우도 이 사업 내에서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적해 주신 부분 잘 참고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어쨌든 간에 저희 기업과 학계에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GPU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들, 그걸 통해서 AI 시장 생태계를 만드는 이런 측면에서 잘 고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저는 학계에는 공짜로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도덕적 해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학계는 저희가 무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민희 최형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잠깐 위원장님께 오늘 회의 운영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습니다. 오늘 2번 안건, 3번 안건 결의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위원장 최민희 최소한 한 차례 질문 끝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형두 위원 질문이 끝나고 하시는 거지요?

지금 오늘 현안질의가 특정하게 결산과 관련된 것 아니고 현안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질의가 이어지면서 오늘 한 50여 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까지 고위공직자들이 여기 다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지금 현안질의라는 것을 좀 구분해서 했으면 이런 장시간의 예측하지 않았던 이런 시간을 국회에서 대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를 꼭 보셨지만 전부 이진숙 위원장의 진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행히 오늘 이준석 위원의 질의라든가 또 이주희 위원의 질의 등이 없었다면 다른 기관에서 와 계신 공직자들로서는 참 이게 무려한 자리가 되고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국회에 있어야 되나 싶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회의를 좀.....

우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데 약칭은 과방위라고 합니다. 과방위라고 하니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방송을 많이 한다고. 과학기술, 정보통신, AI 이렇게 많은데 왜 국회의 과방위는 방송만 이렇게 계속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정보통신부의.....

○위원장 최민희 2분을 하셔야지. 지금 2분 지났어요.

○김현 위원 지금 아예 멈춰 놓고.....

○위원장 최민희 멈춰 놓고 계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현 위원 2분 이미 쓰셨어요.

○최형두 위원 그냥 7분으로 하겠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충분히 하셨어요, 2분 넘게. 그런데 7분부터 다시 하시는데 마무리하시게 1분 더 드리시고요. 1분 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1분 더 드리세요, 1분.

○최형두 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회의를 조금 구분해서, 주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사안 같으면 별도로 회의를 하자, 회의는 무제한할 수 있고 1소위원 2소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라고 새로운 정부기구를 구성하는 안을 내서 온 것 같은데 정부 편제를 바꾸고 열어 가는 사안인 만큼 차제에 방송만 좀 별도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론을 내는 방송특별위원회를 저는 국회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또 어떤 때는 방송사, 공영방송에 관련된 사람들까지 다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방통위원장 한 사람 또 KBS 사장 한 사람한테만 모든 질문이 집중되고 나머지 참석자들은 이걸 뭐 조언도 아니고 더구나 하실 일이 또 많으신 분인데 이렇게 자꾸 공전되는 듯이 보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2분 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지금 최형두 간사님께서 회의 진행, 그동안 회의 진행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서 주로 사실을 좀 왜곡하는 내용이 있어서 바로잡고자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박장범 KBS 사장이 왔을 때 KBS 대상으로 결산심사였고 박장범 사장은 제가 알기로는 대략 7개월 만에 국회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할 때 했고 그리고 먼저 이석한 전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을 장악하고 공영방송을 망가뜨렸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최형두 간사님이 그렇게 평가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산도 중요하지만 현안질의도 중요해서 위원들이 준비해서 나온 질의를 준비하지 않은 위원들 특히 야당 위원들도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물타기 하고 대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최형두 간사님은 매번 저희 여당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데 방송통신에만 질의를 하느냐라는 왜곡된 프레임으로 해서 있지도 않은 상황으로 자꾸 호도하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2024년도 5월 30일 이후에 국회가 열렸을 때 앞서 얘기했지만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예를 들어 디지털포용법도 21대에 처리하지 못한 거 저희가 여야 합의로 처리했고 AI 기본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닫고 그리고 여야가 AI에 관련해서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마치 이진숙 위원장을 어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실에서 회의에 대한 통계를 좀 받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민희 우리가 국감 할 때는 가능하면 방송통신,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현안질의 등 할 때……

○김현 위원 아니, 제가 요청드린 2024년도 1년 동안 저희 회의에 대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그거는 자료 요청하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최형두 간사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조금도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두 분이, 간사님 두 분이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현 간사님 말씀도 맞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지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 시간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아니, 뭘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당……

○최형두 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 시간이니깐 제 시간 주세요, 이제.

○김현 위원 회의 진행하잖아요.

○최형두 위원 아니, 지금 무슨……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왜 이러세요.

여당 위원님들은 한 주제를 얘기하고 야당 위원님들은 결산 관련해서 집중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관심 있는 현안에 집중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 평가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야 간사께서 잘 논의하고 조절하셔서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최형두 간사님이 저런 말을 하지 않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은요, 김현 간사님이 지금 요청한 그 자료…… 김현 간사님, 조금 이따가 정확하게 내용을 적어서 수석전문위원에게 주시지요. 그러면 통계 내 주십시오.

최형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7분 드리십시오.

○최형두 위원 제 말씀의 본질이 뭐냐 하면 제가 여기 앞에 계신 장관님들이나 차관님들 또 우주항공청장님, 원자력안전위원장님 보기가 민망합니다. 지금 네 시간째, 다섯 시간째 계속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일하고 그분들은 관계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상임위 운영을……

제가 여당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비평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으니깐. 그게 아니라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구분해서 하면 어떠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각각 다 중요한 부처인데 왜 우리 상임위는…… 전체 회의시간과 발언 내용을 보시면 그것은 뭐 김현 간사님 요청이 아니더라도 다 명명백백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우리 과학계나 기술계나 또 AI 혁신 생태계에서 ‘왜 그 상임위 이름이 과방위입니까?’, ‘방송만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야당 위원님들, 여당 위원님들 다 지난 정부 일에…… 지난 정부 잘못된 것 다 고쳐야지요. 그리고 새 정부에서는 반복하지 않아야 될 일이고 잘못된 것은 고치자는 것이고요.

제 이야기인즉슨 과학기술정보통신 쪽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고 우주항공도 있는데 상임위 운영을 예컨대 오늘 같은 경우도 결산을 빨리 먼저 했으면 질의할 사항이, 현안질의가 없는 부처의 공직자들은 업무로 복귀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김현 간사랑 미리 상의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점으로 해서 회

의를 좀 집중적으로 하자 이렇게 드리고.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조금만 더 제언을 하자면, 저는 우리 야당 원내대표에게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차제에 차라리 방송특위를 만들자, 만들어서 그 특위에서 지금 방송통신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문제니 방송법 개정안도 저희들 낼 겁니다, 또 제·개정을 해야 될 테니까. 그런 문제들을 방송만 집중해서, 방송 일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여당 위원들의 관심이 각별한 만큼 그 부분만 별도로 논의를 해서 당분간 과학 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 제안입니다.

이 부분은 AI 기본법을 함께 통과시키고 좀 늦기는 했지만 합성생물학법 또 우리 과학기술 R&D의 진전을 낳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 동의해 주신 여당 위원님들과 함께 조금 더 우리 상임위를 정말 과학기술정보통신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게끔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방송은 제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따로 떼어 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새로운 미디어 기구를 만들 때 국회에서 이 부분만 연구하는 특위를 만들어서 별도로 논의하자 이런 제안이고요.

이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오전에 김현 간사님 말씀하시고 팩트체크 차원에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쟁점은 왜 5인 체제여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가 되었느냐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사유도 2인 체제에서 왜 그렇게 의결했느냐는 것이고 또 모든 소송의 결과도, 특히 당사자들이 반소를 하는 바람에 방통위가 다시 또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들이 대부분 보면 ‘내가 임기가 끝나기는 했지만 후임 이사를 뽑을 때는 5인 체제에서 해야지 왜 2인이 마음대로 했느냐’라는 이런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쟁점은 우리 최민희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이 다르고 변명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그래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최민희 위원장 억울하겠나, 왜냐하면 국회에서 의결했으면 정부에서 빨리 가부만 해야지 뭘 그것을 7개월씩 지연시켰느냐, 그래서 당시 법제처장한테도 제가 따졌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무려 1년여, 지금은 근 2년 가까이 되어 가지요? 이 기간 동안에 3인의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지도 않고 의결하지 않은 국회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대행 그리고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직접 국회 쪽 소추인에게 물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 5인 체제를 복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김태규 전 부위원장 공석으로 생긴 이것을 왜 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새롭게 구성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인가 그 위원회도 구성은 똑같습니다. 숫자를 좀 늘리고 일부 기능을 약간 조정하면서 결국에는 국가보위입법회의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는 법을 바꾸어서 기관장을 바꾸겠다는 것인데 이것 이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별에 특별을 보태서 굉장히 이상하게 되면서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위헌결정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저는 방송통신위원을 대통령도 한 명 임명하시고…… 그리고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필리버스터에서도 우리 야당 원내대표한테 허락도 안 구하고 마음대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 엄청난, 힘없는 국민의힘 간사 자

리를 내놓고, 내가 내 자리를 걸고 약속할 테니까 국회가 여야 합의로, 저희들 야당 추천 몫이 2명이지만 합의로 3명을 합시다……

제가 이제 본안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바쁜 시기입니까? 우리 국회에 다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당장 장관님은 다른 업무 보시다가 오신 상황이고 다른 차관들, 위원장님들, 청장·차장님들 지금 얼마나 바쁘십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업무가 거의 중단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일이 급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어제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에서 유튜브·포털 뉴스 댓글 허위조작정보 시민피해 구제 및 민주주의 훼손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방안 마련 토론회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아직까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최형두 위원** 여당에서 이런 것 하면 왜 밑에서 보고 안 합니까, 이런 것? 이게 방통위 주요 관심사항 아닙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도 관심이 높으시고 정청래 여당 대표도 관심이 높으신데, 지금 유튜브 같은 대규모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정보, 허위조작 정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굉장하지요. 민주주의를 해칠 정도입니다, 전 사회를 적대적 진영으로 갈라 세우고. 그래서 제가 필리버스터 때 13시간 반 하면서 유발 하라리라든가 세계적 전문가들의 글을 많이 실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이게 대통령 선거 결과도 바꿨습니다.

유튜브 같은 것을 규제하기 위한 유럽의 동향을 알고 계십니까, 방통위원장께서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DSA 법이 마련돼서……

○**최형두 위원** 맞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도 DSA 법안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민주당 위원님들 계시니까 아시겠네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방통위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희도 이용자보호법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야 특파원도 하시고 워낙 영어에 능통하시니까, 지금 미국 FCC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튜브에 대해서? 그 나라는 구글이 있는 나라니까 FCC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지난번에 FCC 브렌던 카 위원장과 만났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미국은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거대 테크기업들이 다 미국 회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최 간사님도 알고 계시는 대로 미국에서는 명예훼손 관련해서 굉장히 엄격한 법 집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럽과 비교해서 보자면 아무래도 규제 쪽은 조금 더 약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래서 지금 나머지 다른 위원들이 공석 상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와 함께 적극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현 위원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이 글로벌 테크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 5인 구조가 아니어서 이걸 논의를 못 했다 내지는 1인 구조이기 때문에 못 한다라고 지금 발언을 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징금 의결 지연을 보면 2023년 10월에 이동관·이상인 때 계획을 발표하고 12월 달에 의견 청취 및 법리 검토를 진행했고 김홍일·이상인 체제 때, 구조 때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러면 2025년 1월 23일부터 6월까지 2인 구조였는데 왜 안 하셨어요? 변호사가 없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이때 2025년 들어서면서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김현 위원 아니, 그거랑 무슨 상관 있습니까? 일을 하셔야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실제적으로 다른……

○김현 위원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거짓말 아닙니다.

○김현 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김현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것은 팩트체크하는 겁니다.

과징금 의결 지연한 것은 이미 2024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부과와 관련해서 하나 더 띄워 보세요, 방통위 자료.

보면은 ‘조사 결과 앱마켓사 특정 결제방식 강제 외에도 앱 심사 부당 지연, 차별적 수수료 부과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다, 하지 않은 거 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진숙 위원장의 고발, 한번 띄워 보시지요.

2024년 7월 31일 대전유성경찰서에 어떤 혐의로 고발이 되었지요? 고발된 사건명이 뭐예요, 범명?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업무상 배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또 하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 개잖아요. 모릅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 공여로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 혐오발언과 정치적 편향으로 논란을 빚은 부적격 인사를 선거방송심의 위원에 위촉한 방송통신심의위원과 함께 지금 감사원 요구로 어떤 게 됐습니까?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반해서 주의 조치 받았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김현 위원 그다음에 2025년, 유성경찰서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추가 고발됐어요. 이것도 같이 조사받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것은 저는 모르는 사안입니다.

○김현 위원 뭘 모릅니까? 그러면 이 부분 수사가 안 됐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사받지 않았습니다.

○**김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송통신 위원장으로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4월 30일 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민주당을 반대할 목적과 민주당 후보를 낙선 시킬 목적으로 ‘최 대행이 현행범이라면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이다’라는 페이스북을 게시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 의뢰됐는데 혹시 조사받았습 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연락은 받았습시다만 조사는 아직 받지 않았습시다.

○**김현 위원** 출석 안 했습니까? 출석 안 했습니까? 연락을 받았으면 출석 일자를 통보 받았을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출석 일자 조정 중입니다.

○**김현 위원** 조정 중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황제수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7월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TBS와 팩트체크넷에 대한 직무유기 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당했습니다. 혹시 소환 통보받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아직 받지 않았습시다.

○**김현 위원** 받지 않았습시다.

그다음에 7월 18일 날 다시 고발이 됐습시다. 4월 30일 것 이어서, 감사원 주의 조치 통보에 덧붙여서 유튜브에 출연해서 앞서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다 수 독재,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규정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했다는 정치적 발언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지금 고발이 되어 있습 니다. 이것은 추가 고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김현 위원** 이것 조사받았습니까? 소환 통보받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조사는 아직 받지 않았습시다.

○**김현 위원** 예, 맞습시다. 이것도 황제수사입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31일 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iMBC 주식, 삼성전자 주식…… 올랐지요, iMBC 주식?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모릅시다.

○**김현 위원** 올랐어요. 보도 보세요.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바이든-날리면’ 이것 관 련해서 소 취하가 돼서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당 기업 관련 직무 관여를 금지함에도 심의 의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지금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빵 때문에 이진숙 물리나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 위원장 직무에 있을 때 이 술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 민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전MBC 넘어가겠습니다.

7월 31일 날 고발장을 접수했는데요. 세 차례 출석 요구받았지요, 이진숙 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출석 요구는 수차례 받았습니다.

○**김현 위원** 받았는데 출석하지 않았어요, 조율한다는 미명하에.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미명은 아니고요.

○**김현 위원** 그래서 7월 4일 날 6시간 내지 5시간 조사받고 그 이후에 두 차례 조사받았는데 지금 문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성경찰서에 제가 추가로 고소한, 고발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것 조사 안 받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봐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워낙 고소·고발 건이 많아 가지고……

○**김현 위원** 그다음에 고발 사유를 얘기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고발 사유가 그냥 빵이 아니에요. 빵이 아니고요, 법인카드 사적 사용 23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5건, 기타 배임·횡령 8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카드로 노래방 가도 됩니까? 노래방 가도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행사 끝에 저녁 식사 끝나고……

○**김현 위원** 아니, 가도 됩니까? 업무추진카드로 노래방 가도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업무와 관련해서 행사 관계자들과 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카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조사와 관련해서는 여기서 밝히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아니요, 청문회 때 다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대전MBC 사장 시절 개인적으로 카드로 쓴 게, 재임 기간에 쓴 게 대략 4억가량이고요. 사장 법인공용카드로 쓴 게 1억 4700만 원이고요. 보통 사장은 200만 원가량인데 이진숙 위원장은 어찌된 영문인지 420만 원을 썼습니다. 200만 원이 초과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서강대학교 대학원 몇 번 다녔지요, 방통위원장 시절에?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시절에는 다닌 적이 없고……

○**김현 위원** 참, 죄송합니다. 대전MBC 사장 시절에 몇 번 다녔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 관련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하지 않겠습니다.

○**김현 위원** 수사 중인 게 아니라 대학원에 다니면서 관용차를 이용하고 대학원 수업 전에 식사비용으로 쓰고 주차비용 쓰고 사장 명의의 법인카드로 다수 결제했고요. 법인카드 규정에 의할 때 사용할 수 없는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골프장, 상품권, 주유권 이런 것 다 써서 지금 고발된 거예요. 마치 한 푼도 유용하지 않았다 그런 뻔뻔한 거짓말을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반복되게 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거짓말하지 않았습시다.

○**김현 위원** 두둔해도 유분수지. 그러고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한다고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십시오, 말이 되는 얘기를.

적어도 저희가 지난 3일 청문회 할 때 이런 사실을 발뺌하고 자료제출을 안 하고, 2월 달 대전MBC에서 감사가 들어왔는데 서류를 접수 안 하고 연락 안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기억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도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분들처럼 자료를 제

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터무니없는 조사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억울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억울합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공직에 있으면 안 되지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국회의 노력을……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잘못된 것 없습니다.

○**김현 위원**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임기를 지켜 달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안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8월 27일 날 물어보니까 못 봤던데 이번에는 제대로 보고 나왔습니까? 봤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보도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방통위원장.

여당 의원이 법을 만들고 하면 성의는 보여야지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정법 틀이 마련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법은 2개가 발의되어 있는 겁니다. 시청각 미디어통신위원회 제정법이 하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방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과기정통부 조직개편에 관한 법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고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최소한 파악은 해야지요. 최소한 방통위 사무처장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개의 카테고리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과기부장관님, 지금 KT와 LGT 관련하여 해킹 사태가 터졌는데 저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KT와 LGT가 과기부와 KISA가 하고 있는 그 조사에 제대로 응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어서 KT의 자료제출 요구를 저희가 8월 10일 받았고 관련 자료제출을…… 아, 8월 10일에 저희가 요구를 했고 8월 13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KISA 통해서 지금 KT 방문해서 현장 확인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면밀히 점검하고 과기정통부에서 추가 대응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지금 민관합동조사단을 못 만들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 이유가 뭐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KISA가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 중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못 꾸리지요. 이것은 KT와 LG유플러스가 자진신고를 해야만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게 돼 있지요, 현재 법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지금은 신고를 해야 저희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진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건 차관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2차관입니다.

저희가 사실 신고를 초기부터 권유한 것은 맞고요. 그 권유하게 된 배경은 다크웹에 올라온 자료의 내용이 회사가 보유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저희가 받은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확인했을 때 이것은 법적인 근거를 갖고 합동조사단, 그런 공식적인 조사를 위해서 신고를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자들의 의견은 자체조사 결과 침해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고에 따른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신고 권유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고요.

○위원장 **최민희** 지금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대신 정부의 권유에 따라서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그래서 지금 조사에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 사실조사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하는 조사, 차이가 있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차이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희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통신사들이 대한민국 과기부를, KISA를 어떻게 보기에 이런 행동을 하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위원장실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래서 저희가 즉시 관련 개정안을 낼 생각이고 이것은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해킹 정황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유출된 자료가 KT와 LG유플러스의 자사 정보와 일치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침해사고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버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LG유플러스의 경우는 민관합동조사에 준하게 임하겠다고 했으니까 시작을 하시고요. KT의 경우는 서버가 파기됐다면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그 서버를 일부러 파기했다고는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설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것부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KT가 본래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서버를 파기했다고 하는데 하필 이 시점에,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혹시 해킹 흔적을 없애기 위해 그런 것 아니야?’ 이런 의혹이 생길 수도 있으니 KT도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이 자리에 오시는 사업자들에게 말하는데 어떤 정부건 대한민국 정부 부처, 특히 과기부든 방통위든 사업자가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저희 국회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PPT 띄우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 사무처장님, 팩트체크넷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됐잖아요, 과징금. 그 부분은 좀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저희가 그 자료 살펴보니 일단 부담할 수가 없어요, 그 단위가 해산되어서…… 그러면 그것은 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다시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금 이의제기 기간이라면서요? 그때 잘 살펴서 무리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고민만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제가 관심 있는 건 거짓말입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특히 공직자는 저는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빵이건 포도주건 별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사실에 부합하냐에만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2024년 7월 26일 그때도 똑같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때 ‘일종의 케이크입니다, 롤케이크. 가격이 상당히 나갔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4년 8월 20일 또 ‘롤케이크 4만~5만 원 정도’ 여기 나왔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에요, 위원님들이 다 밝히신 건데.

그래서 이상해서 저희가 그때 샀다고 하는 그 제과점에 당일 출고된 롤케이크가 몇 개 인지를 확인했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 1월 8일까지 그즈음이에요. 저 즈음에 롤케이크를 샀다고 하는 그 대전 제과점에 롤케이크가, 납품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납품된 개수를 확인했어요. 딱 저것밖에 없어요. 제가 2주를 확인했지요. 왜 2주일까요? 롤케이크는 2주예요, 2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보존기간이 2주예요. 몇 개인지 아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고 있구나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어서, 저는 공직자의 거짓말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만은.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한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1분 더 주세요.

2017년 11월 5일 4시 34분 53초에 파리바게뜨에서 1만 6500원을 결제했습니다. 오전 4시 34분 어떤 공적 업무를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제가 사적으로 사용을 했다면 MBC 사상, MBC 창립 이후 65년 동안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말 돌리지 마시고요.

2017년 11월 5일 오전 4시 34분 어떤 공적 업무를 파리바게뜨에서 봤기에 1만 6500원을 쓰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만약에 최민희 위원장께 2017년 11월 5일에……

○**위원장 최민희** 아니, 답 똑바로 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보면 대답 못 하실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오전, 새벽……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저런 짓 안 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오전 4시 34분 53초에, 새벽 4시 34분 53초, 새벽 4시에 어떤 공적 업무를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업무 외에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2017년 11월 5일 오전 4시 34분, 이때 일요일입니다. 파riba게뜨에서 어떤 공적 업무를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위원장 최민희 일요일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수행기사, 총무부 그리고 저의 법인카드, 종류가 최소한 세 가지 이상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건 본인 카드, 본인의 법인카드입니다.

2017년 11월 5일 오전 4시 34분 어떤 공적 업무를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업무 외에 사적으로 쓴 적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건 거짓말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거짓말 아닙니다.

○위원장 최민희 거짓말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수사 결과를 기다리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답하십시오. 오전 4시에 누구와 공적 업무를 보니까, 새벽 4시에?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경찰조사로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오전 4시에, 우리 앵무새처럼 도돌이표 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오전 4시에 무슨 공적 업무를 보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거짓말 아닙니다.

○위원장 최민희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한테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욕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거짓말로 보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거짓말 아닙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만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거짓말 아닙니다.

○위원장 최민희 오전, 새벽 4시에 무슨 공적 업무를, 그것도 일요일 새벽 4시에 공적 업무를 누구와 보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믿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개인 카드 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믿든지 말든지는 최 위원 마음대로지만 저는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렇게 딱박딱박 답한다고 뭐 올라가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새벽 4시에, 일요일 날 새벽 4시에 공적으로 썼다고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1만 6500원 정도 쓰면서 따박따박 법카 쓸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공적인 업무로만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정말 진짜 지저분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누구에게 할지 여쭙보겠습니다.

누구에게 하실 겁니까?

○이정현 위원 이진숙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누구에게 하실 겁니까?

○김현 위원 이진숙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누구에게 하실 겁니까?

○이훈기 위원 이진숙 위원장에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위원님이 없는 부처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오게 하세요.

○김현 위원 그리고 최형두 간사님, 막간을 이용해서……

장관은 오전에 국무회의 때문에 점심 먹고 오셨고 우리가 시작을 11시에 했기 때문에 총소요시간이 점심시간 빼면 3시간밖에 안 돼요. 공무원이 여기 와 가지고 고생한다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최형두 위원 다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김현 위원 다른 일이 아니라 국회가 중요한 일이에요, 간사님.

○최형두 위원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현 위원 마치 여당이……

○최형두 위원 아니, 그리고 내 이야기는 그러면 결산부터 하고 했으면……

○김현 위원 아니, 한 순배는 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아까 시작할 때……

○최형두 위원 그래요, 내가 그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현안질의 바로……

○김현 위원 아니, 질의는 한 바퀴는 돌아가야지 그다음에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최형두 위원 공무원들도 대충 언제 업무 복귀하는 것을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현 위원 업무 복귀 못 해요, 지금. 세종에 내려가서 할 수 없어요, 지금. 퇴근이에요. 너무 그렇게 우리가 하는 이 국회 활동을……

○최형두 위원 그러니까 방송특위를 따로 만듭시다.

○김현 위원 방송특위를 어떻게 따로 만듭어요? 최형두 간사님이 똑딱똑딱 하면 만들 어지는 게 방송특위입니까?

○최형두 위원 아니, 여당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이 방송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보니까 지금?

○김현 위원 왜 또 하필이면 방송특위입니까, 방송통신특위예요.

○최형두 위원 방송통신특위를 만들든지. 이전에 만든 적 있잖아요? 방송미디어특위 만들 때.

○김현 위원 아니, 누가 그렇게 방송장악하게 그 몇 년 동안 고생시켰어요?

○최형두 위원 방송장악을 했으면 이 사달이 났습니까? 방송장악 못 하고 망신만 당했지.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방송장악을 하려다가 못 할 것을 왜 하나고.

노종면 위원님 오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리고 자리 이석 좀 그만하라고 그래요, 투표하기 전까지는.

○최형두 위원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하자고, 빨리빨리 했으면 됐지 않았겠어요?

○박정훈 위원 아니, 남의 당 사정까지 왜 간섭하고 얘기를 하세요……

○김현 위원 아니, 최형두 간사랑 이야기하는 데 끼지 마세요, 박정훈 위원은.

○박정훈 위원 아니, 왜 남의 당 사정까지 끼요?

○김현 위원 박정훈 위원은 끼지 마세요, 제발.

○박정훈 위원 본인이나 끼지 마, 제발……

○김현 위원 미쳤나 봐, 진짜……

○최형두 위원 자, 제삼자 발언 중지, 제삼자 발언 중지. 앞으로 하지 맙시다.

○박정훈 위원 왜 남의 당 사람들까지 본인이 있어라 마라 얘기를 해요, 왜?

○김현 위원 내가 최형두 간사랑 대화하는데 부러우면 간사하세요, 박정훈 위원.

○박정훈 위원 무슨 위원장이예요?

○김현 위원 박정훈 위원 나중에 간사하세요, 그럴 일 없겠지만.

○최형두 위원 자, 그만. 의결합시다.

○박정훈 위원 할게요, 할게요.

○김현 위원 그럴 일 없어요. 그럴 일 없으니까 최형두 간사랑 얘기할 때 끼지 좀 마세요, 좀.

○위원장 최민희 자, 이제 진행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결산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우주항공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을 요구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의결과 관련하여 각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입 및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곧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숙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입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방통위의 재정이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곧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조인철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주항공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해 주신 고견들은 향후 우주항공 분야 예산안 편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예산집행을 토대로 우주항공 기술력을 높여 나가고 산업적 성장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에 대한 과방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성원과 제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곧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 의결은 마쳤습니다만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윤영빈 우주항공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순서……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노종면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세 분, 네 분.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분 드리겠습니다.

○**박정훈 위원** 많이 힘드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괜찮습니다.

○**박정훈 위원** 나가라고 그러니까 안 힘들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괜찮습니다.

○**박정훈 위원** 잘 버티실 수 있어요?

아까 최민희 위원장께서 카드 쓴 것 새벽에 썼다고 그것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 무슨 거짓말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전혀 그 근거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박정훈 위원** 누구 개인적으로 사 먹은 거나 이런 게 있으면 몰라도 새벽에 썼다는 이유로 그게 무조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상식선에 애기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진숙 위원장이 카드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비호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잘못 쓴 게 있다면 그것에 맞는 처분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바라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고요.

다만 이런 기준이 우리 국민들 상식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게 국민

들 상식이에요. 그렇지요? 그 상식을 가지고 민주당 위원님들도 카드 얘기를 이렇게 계속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썼던 카드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위원님들 어느 분도 본인 당대표와 지금 대통령이 썼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그리고 저희가 언급하면 다 땅 보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 들어 보신 적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 개인적으로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박정훈 위원** 들어 본 적이 없지요. 왜냐하면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이렇게 다 돈 쓴 게 증인이 나왔잖아요, 공익제보자가? 그렇지요? 조명현 씨가 다 제보를 했잖아요.

심지어는요 가서 법인카드가 아니라 개인 카드로 쓰고 나중에 경기도 돈으로 그것을 바꿔치기까지 했어요. 그것 진짜 파렴치한 것이에요. 아니, 법인카드로 사적 유용을 어느 정도 하는 경우야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가서 쓴 것을, 법인카드를 바꿔치기해 가지고까지 법인카드를 썼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혹시 뭐라고 변명했는지 들어 보신 적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생각나지 않습니다.

○**박정훈 위원** 아랫사람 잘못 관리했대요, 자기 안 썼대요. 그것 다 소고기 먹고 초밥 먹고 자기가 다 먹었는데 자기 월급은 통장에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지요? 누가 봐도 거짓말, 뻔한 거짓말, 그렇지요? 그리고 기소가 됐잖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 어느 당이에요? 민주당이지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국감에서?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최대 100건이다, 그래서 수사 의뢰했다 그랬어요. 그게 민주당의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인카드 문제를 많이 저지른 대통령이 지금 이 문제로 기소가 돼 있는 상황에서 ‘새벽에 얼마 썼다, 그것 사적 유용 아니냐’, 단정해서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몰아붙여 가지고 나가라고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나라 법은요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그게 국민 상식이에요. 헌법정신도 그래요. 그런데 그 법을 이진숙 위원장하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다 적용하고 본인만 적용 안 하겠다? 그것 절대왕정 국가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만약에 제가 사적으로 썼다면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정훈 위원** 당연하지요. 그것 사적으로 쓴 게 있고 내가 켜기는 게 있으면 그것 동의 안 해 줘도 되는 걸 동의해 줘 가지고 이 문제 만든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조명현 씨의 경우에는, 이재명 현재 대통령은 당시 이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조명현 씨는 내부고발자가 있었고 초밥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제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박정훈 위원** 증거 사진 다 나왔잖아요. 그것 조명현 씨가 썼어요? 다 이재명 대표 부부를 위해 쓴 것 아니에요? 그리고 대리처방까지 받았어요. 싸이가 대리처방했다고 요새

난리던데 김혜경 씨 대리처방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경기도 관련 의사가 기소됐어요. 김혜경 씨는 자기가 그것을 몰랐다 그래서 기소 안 되고.

이게 세상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법 상식이 이렇게까지 망가져도 돼요? 10개 넘는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본인 것 다 빼 내가고 나머지는 다 지금 일반 국민들은 그 법에 따라서 처분받아라. 법 위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요 대통령이 지시해 가지고 민주당에서 가짜뉴스 그것 엄벌하고 형사처벌도 강화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알고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우파든 좌파든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방송 못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를 갖고 한다면.

그런데 민주당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사드 전자파 튀겨진다고 가서 춤추고 노래 부른 것 기억나요?

제가 가사 읽어 드릴게요.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사드의 전자파는 싫어.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찢어질 것 같아’ 이런 노래 불렀어요, 국민들 선동하고. 머리에다 이것 빨간 것 쓰고 막 춤추고 노래한 것 생각나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생각납니다.

○박정훈 위원 민주당 사과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 안 계신데 거기에 가셨던 국회의원 6명 사과하는 것 들어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것 한번 사과라도 하고 처벌하겠다는 얘기 해야지요.

광우병 얼마나 나가서 선동했어요? 당장 미국 소 사 먹으면 다 죽을 것처럼 선동해 놓고 민주당 앞장섰잖아요? 민주당에서 사과 한번 한 적 있어요?

일본에서 후쿠시마 처리수 내보낸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 당시에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어디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문재인 정부에서의 사드 전자파 환경영향평가했는데 유해 기준의 530분의 1밖에 안 나왔는데 발표 안 하고 망기적거리다 나중에 다 드러났잖아요. 진짜 파렴치한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게 가짜뉴스 처벌하겠다는 말을 합니까?

김어준 씨 처벌한다는 얘기 들어 봤어요? 김어준 씨야말로 음모론을 제일 많이 만들어 낸 사람이에요. 아까 한민수 위원이 우리 당대표를 보고 ‘전한길당의 장동혁 대표’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요? 들으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박정훈 위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김어준당의 정청래 대표 그 밑에 비서실장 하는 사람이 그러면 김어준 비서실장이예요?

그냥 나가라고, 정권 바뀌었으니 나가라고 그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갖다 붙여 가지고 되로 주고 말로 받지 말고. 자기네 대통령이 지금 법인카드로 1억 넘게 써 가지고 기소가 돼 있는 상황에서 법인카드 썼으니 빵은 새벽에 사 먹었냐, 언제 사 먹었냐 이 얘기 하면서 이 상임위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 어떤 심정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아까 여러 고발

사건이 열거가 됐습니다만 고발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제가 최민희 위원장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만 최민희 위원장도 그러면 모욕사범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몇 건……

○위원장 최민희 저 신상발언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고발을 몇 건 당했다고……

○위원장 최민희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중단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유죄라고 얘기하면 저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위원 잘 버티세요. 알았지요?

○위원장 최민희 지금 제가 참을 수가 없는…… 제가 오늘 많은 모욕을 참았습니다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화도 나겠지요, 본인들의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과 영부인의 지금 추잡한 행태가. 오죽 하면 금 거북이까지 나왔고 금 거북이로 매관매직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나오는 판 이면 금 거북이 하나겠습니까? 부끄럽겠지요.

도대체 윤석열 정권, 김건희 정권에서 장차관이 된 사람, 정무직공무원 된 사람은 금 거북이를 갖다 줬을까? 저 사람은 금 송아지일까? 국민들이 그런 의심을 하는 이 상황, 자괴감이 느껴지겠지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야 위원 모두, 여야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품평하지 말아라, 그걸 가지고…… 지금은 이진숙이라는 위원장이지만 저 자리에 천년만년 있겠습니까? 과기부장관도 바뀌었잖아요. 그 과기부장관과 여당이 티키타카하면서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비웃고 욕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당했지요. 그런데 참았습니다, 야당 시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공직자의 거짓말에 관심이 많습니다. 거짓말하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 말이 자꾸 바뀌는 사람, 이런 사람 빼 빠지게 일해서 세금 내는 국민의 혈세로 월급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원칙대로 살려고 뼈가 아프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겐 거짓말을, 말 바꾸기를 너무 많이 해서, 법카와 관련하여.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 당시에 그 해당 제과점에 납품된 롤케이크까지 다 파악했겠습니까, 아니길 바라면서? 그런 거에는 답 안 하잖아요. 안 하면서 말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2017년 11월 15일 4시 34분 53초, 새벽 4시 일요일 날 파리 바게뜨에서 누구와 공적 업무를 했냐고 묻는 겁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일요일 새벽 4시 34분에 공적인 일을 누구와 합니까, 새벽 4시 34분에? 그걸 제가 질문을 했는데 바로 이어받아서 그것을 이진숙 위원장하고 티키타카하면서 저를 욕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금방 그러지 말라고, 간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최형두 위원 뭘 또 저를 갑자기 또……

○위원장 최민희 게다가 대통령이 지시해서 가짜뉴스 어찌고저찌고요? 국민의힘 위원님들 그러시면 진짜 안 됩니다. 방송 3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통령이 그 법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여당 됐는데 그 법 안 하실 거라고. 그 태도에서, 국민의힘 위

원들의 그 말에서 이미 증명된 것 아닙니까? 방송 3법이 방송 독립법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법이라는 것. 그래서 방송계가 환영하잖아요. 토론회에서 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안 할 줄 알았다, 방송 3법. 그런데 진짜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최시중, 이계철, 이경재, 최성준, 이효성, 한상혁, 이동관, 김홍일 역대 방통위원장 심지어 이동관, 김홍일조차 어디 페이스북에 글 쓰고 대통령에 대해서 욕하고 이것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뒤에 방통위 직원들, 돌아보세요. 최시중 위원장 그러신 적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은 지켰어요.

최시중, 이계철, 이경재, 최성준, 이동관, 김홍일 이분들 전부 국힘 쪽 분들이세요, 국힘 쪽에서 임명한. 그런데 누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윤석열의 감사원에서 중립의무 위반해서 주의받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한 명이라도? 정말 특이한 분을 가지고 과방위원장을 모욕해 가면서 옹호하십니까?

게다가 정말 윤석열의 방송장악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저항한 위원장이면 그 말할 자격이 있지요. 입만 열면 이튿날 탄핵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통위원장이 임명된 당일 날 공영방송 이사를 후다다다닥 임명해 버립니까? 그게 초유의 일이지.

그래서요 여야 위원님들이 서로 위원님들 가지고 그걸 소재로 국무위원들한테 질의하는 것 자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분 드리겠습니다.

아, 이정현 위원님 7분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저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짓말과 말 바꾸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진숙 위원장, 그동안 국회 발언이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거짓 답변을 하거나 거짓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최민희 위원장께서 질의하셨었지요. 대전 뚜레쥬르점 그곳에서 팔린 롤케이크는 일주일 동안 7개에 불과했다, 하루에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4만~5만 원어치의 과자류를 선물용으로 구입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기억한다. 분명히 기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밖에 팔리지 않았는데 대전 뚜레쥬르점에서 최소 한 20개 중에서 10개 정도는 구입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격상으로 보면?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파업 중에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이정현 위원** 그 말 하지 마시고.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20명 안팎의……

○**이정현 위원** 빵을 최소 10개 정도는 그 가격으로 치면 뚜레쥬르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20명 안팎의 직원들을 위해서……

○**이정현 위원** 가만히 계세요.

뚜레쥬르에서 구입한 금액이 53만 4100원이에요. 그런데 롤케이크 팔린 건 하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거짓말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거짓말 아닙니다.

○이정현 위원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것. 자, 또 거짓말하시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직원들 용으로 구입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조용히 하세요.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었지요. 폐북 글에서 분명하게 서울에서 빵을 구입하고 모자라서 법인카드를 수행비서에게 주고 수행비서가 대전 내려가서 샀다고 했었지요? 선후가 바뀐 것, 제가 지적했었지요. 그것 거짓말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이정현 위원 일관되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직원들 용으로 구입한 것이고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계속해서 거짓말하시고 헌 녹음기 틀듯이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짓말과 말 바꾸기를 하고 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이정현 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16일도 토요일입니다. 새벽 5시 36분 커피체인점 디에떼에서 6000원을 썼어요, 토요일 새벽 5시 36분에. 이것도 공적인 일입니까? 이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그다음 날인 일요일, 12월 17일 밤 9시 47분 42초 듬북듬북이라고 하는 선릉2호점 북엇국 전문점에서 8000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공적 업무로 썼다고 주장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MBC와 대전MBC의 법인카드 사용 기준을 따져 보면 1만 원 미만의 소액결제는 법인카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적 업무로 썼다, 이런 주장들만 하고 계시니까 정말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정말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을 감싸려고 또 몰타기하려고 대변하시려고 애쓰시는데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도 제대로 팩트를 확인하시고 감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진숙 위원장의 거짓말과 말 바꾸기에 오히려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최형두 위원 아니, 왜 그래, 정말로!

○이정현 위원 한번 보세요! 보시고 말씀하세요.

○최형두 위원 좀 정도껏 해, 정도껏.

○이정현 위원 보십시오.

○김현 위원 질의하는데 왜 그래요.

○최형두 위원 아니, 상도위가 있지, 서로가 지금.

○이정현 위원 제 질의시간입니다, 보세요. 확인을 좀 하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보

세요.

저도 웬만하면 이 영상을 틀고 싶지 않았습시다. 웬만하면 이 영상을 틀고 싶지 않았는데 좀 확인을 하고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티키타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우리는 다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1만 원 미만의 소액결제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적으로 사용했다는 그 답변만 끌어내는 질문을 하시니 너무나도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속해서 공적으로만 사용했고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발언만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넘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 질의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거짓말한 적 없고……

○이정현 위원 그리고 빵 빵 빵 해서 저희가 빵 얘기만 한다고 하는데……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사적으로 쓴 적도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질의하지 않았으니 답변하지 않으셔도 돼요.

빵 빵 빵 얘기뿐만 아니라 와인도 마찬가지로 법인카드 사용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상 하나만 다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의 법인카드 사용, 지금까지 와인하고 빵과 관련된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최소한 새벽에 6000원, 4000원짜리 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내 실수다, 내 잘못이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싸그리 그냥 다 자기는 잘못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그런 분이, 그런 도덕적으로 큰 결함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방통위원장으로 부적절하다는 부분을 우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1년 동안 계속해서 거짓말만 하시고 말 바꾸기만 하시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거짓말한 적 없고 법인카드는 최소한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수행기사용이 있고 제가 사용하는 것이 있고 총무부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통틀어서 제가 사용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한 적 없고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습니다.

○최형두 위원 아니, 그런 기준으로 치면 지금 대통령 할 자격이 없지요. MBC 민영방송 사장이, 지방방송 사장이 쓴 법인카드 가지고 그렇게 엄하게 따질 것 같으면……

○김현 위원 최형두 간사님.

○노종면 위원 간사님, 안 그러신다고 해 놓고서 왜 간사한테 그러세요.

○김현 위원 최형두 간사님, 최형두 간사님!

○최형두 위원 경기도지사 시절은 됩니까?

○위원장 최민희 아, 대통령…… 지금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시는데요.

○최형두 위원 듣자듣자 하니까 정말 너무하시네.

- 위원장 최민희 대통령은 윤석열 정치 검찰의 표적수사로……
- 최형두 위원 표적수사는 무슨! 안 쓴 영수증이 드러났어요?
- 위원장 최민희 온갖 조작된 혐의가 뒤집어 씌워졌으나 국민들께서 당당하게 대통령으로 선출하셨습니다.
- 이정현 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정을 해야지요.
- 최형두 위원 적당하게 하세요, 적당하게. 과유불급이라고.
- 이정현 위원 왜 그걸 또 감싸려고만 하십니까?
- 박정훈 위원 누가 감췄다고 그래?
- 최형두 위원 뭘 감싸긴 감싸!
- 위원장 최민희 아닙니다.
- 이정현 위원 아까 막 보여 드렸잖아요, 영상을 제가.
- 최형두 위원 같은 기준으로 해 보자고, 같은 기준으로 그러면.
- 이정현 위원 영상 보여 드렸잖아요.
-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은 헛갈리게 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 김현 위원 왜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 최형두 위원 왜 그러기는!
- 위원장 최민희 민주당 위원님들은 말씀하실 때……
- 최형두 위원 아니, 지금 동료 위원을 갖다가 공연히 끌어들여 가지고……
- 위원장 최민희 법카 얼마, 공용카드 얼마,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잘 들으세요.
- 이정현 위원 공연히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반복하니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 최형두 위원 뭘 반복해요, 지금!
- 이정현 위원 팩트 확인을 좀 하시고 질의를 좀 하십시오.
- 최형두 위원 아니, 도대체 그렇게 질의할 게 없습니까?
- 위원장 최민희 뭉뚱그려서 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라고요.
- 한민수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예, 2분 드릴게요.
- 김현 위원 그렇게 질의할 게 없다니요? 질의할 게 많아요.
- 최형두 위원 빵 빵 빵, 빵만 되풀이하고 계속, 빵돌이야, 빵돌이.
- 한민수 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민희 2분 드리세요.
- 노종면 위원 빵 빵 빵 하지 말라고 좀 해 주세요, 우리 말을 안 들으니까. 왜 시도 때도 없이 공직자가……
- 최형두 위원 그렇게 법인카드가 중요하면 공직이 모두 엄격해야지요. 저 사람은 공직자도 아니었어요, 당시에.
- 위원장 최민희 MBC 사장이 왜 공직자가 아니야……
- 김현 위원 검증하는 과정이잖아요.
- 이정현 위원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거짓말.

○최형두 위원 MBC 그냥 지방방송 사장이었다고.

○김현 위원 지금 대전MBC 사장 아니예요. 방통위원장이예요, 지금.

○최형두 위원 그 당시에, 저 법인카드 쓸 때, 법인카드 쓸 때.

○박정훈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대통령한테도 적용하라고요.

○김현 위원 또 끼어들고 있어요, 박정훈 위원!

○박정훈 위원 대통령한테 적용하라고! 하라고!

○김현 위원 박정훈 위원, 또 끼어들어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박정훈 위원 만만해, 왜?

○위원장 최민희 빨리 잘 짝어, 빨리.

○한민수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김현 위원 위원장님, 오전에도 그랬고 이것은……

○박정훈 위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한민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 테니까요, 이제 그만……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박정훈 위원님은 손은 쓰지 마세요, 그냥 말만 하세요. 말만 하세요, 말만. 손은 쓰지 말고.

○박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

의사진행발언 할까요?

○위원장 최민희 예, 2분 하세요.

○한민수 위원 서울 강북구를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제가 없을 때 국민의힘 위원이 제 이름까지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오늘 경향신문 칼럼을 보십시오. 김민아 전 논설실장이 쓴 칼럼을 보세요. ‘전한길당 대표 장동혁’ 제목으로까지 돼 있습니다. 그 칼럼 얘기를 하면서 전한길 씨가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시장으로 가야 된다. 고위공직자들이 그런 얘기 하나까 이건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 지적을 한 겁니다.

저는 동료 위원에 대한 질의 가지고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팩트를 확인하고,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언론에 이런 제목의 기사까지 나왔다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했어요, 귀를 의심? 귀를 의심할 게 아니고 눈을 의심해 보세요, 그런 칼럼까지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이렇게 질의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없는 얘기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상대 당 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름 얘기하면서 또 무슨 다른 사람 이름 거론하면서 그 사람의 비서실장이 아니냐 이런 식의…… 상당히 모독적인 발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한민수 위원이 안 계실 때 한민수 위원 이름 전체가 아니라 어쨌든 비서실장 이러면서 거론이 된 건 사실이고요, 저도 거론했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한민수 위원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저도 거론을 해서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어서 이정현 위원님이 그 자료……

○최형두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정현 위원 그것은 봅시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내 영상을 틀어 가지고, 내가 비호하려고 그랬습니까? 나도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대전 하면 유명한 빵집이 성심당이니까.

○이정현 위원 제가 최형두 위원님이 비호했다고 말씀했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아니, 잠깐만요. 여러분! 여러분!

○최형두 위원 그런데 그것을 내가 비호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뜬 것 아닙니까?

○이정현 위원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질의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최형두 위원이 비호했다는 게 아니고.

○위원장 최민희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최형두 위원 아니 우리 당 위원이, 내가 빵을 감싸면서 비호한다고, 내가 비호하려고 한 질문입니까?

○이정현 위원 제가 최형두 위원님이 비호했다고 말했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안 했어요.

○최형두 위원 내 영상을 틀었잖아요. 내가 질문한 걸 보여 주고 뻔하게 하면서 말이야. 바로 앞에 점잖게 이야기하는 동료 위원들을 이렇게……

○이정현 위원 질의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말을 한 것 아닙니까, 질의에 대해서 거짓말했다고. 질의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이진숙 위원장이.

○위원장 최민희 그렇게 안 보였는데……

○노종면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고요.

○최형두 위원 아이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런 문제로 화내는 거 보셨어요?

○노종면 위원 여당 위원 질의에도 거짓말을 했다 이런 취지로 들려요.

○박정훈 위원 가만히 좀 계세요. 노종면 위원님, 가만히 계시라고요. 보면 본인은 다 끼어들어, 사방에. 본인이 끼어들고 있어요, 지금 대화하는데.

○노종면 위원 소리는 안 질러요.

○박정훈 위원 아이고, 그게 그거예요. 뭘 그렇게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맨날 얘기해?

○노종면 위원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좀 하지 마세요.

○위원장 최민희 한민수 위원 안 계실 때 그런 일이 있었고요.

○최형두 위원 저는 제 면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자고 했고요.

이정현 위원님이 바로 최형두 간사님의 질문을 영상으로 트셔서 제가 공히 여야 위원 모두 그러지 말자 그렇게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현 위원님이, 저도 당황을 했지요. 제가 금방 왜 동료 위원 이름을 거론하느냐, 그런데 영상에 갑자기 간사님이 나오셔서 저도 속으로 깜짝 놀랐지요. 그런데 그 취지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성심당에서 쓴 적 없다, 그런데 썼다, 이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알아들었는데 그렇더라도 가급적……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최민희 제가 말하는데 왜 끼어듭니까!

앞으로 여야 위원들께서 여야 위원들을 거론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티키타카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아니,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말씀을 하니까, 저는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기회 드리지 않겠습니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태도인데 누가 주겠습니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면 위원님 그리고 이주희 위원님, 신성범 위원님, 이훈기 위원님, 김현 위원님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한민수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야 될 텐데, 빵과 법카 얘기 최근에 다시 불거졌지요? 그것 민주당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이진숙 위원장이 자기 주장을 하고 그것이 모자랐다고 판단했는지 페이스북에다가도 장문의 자기 주장 글을 올리고 그러한 주장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재검증을 굳이 하고 있는 겁니다.

빵 얘기 하기 싫어요, 법카 얘기 하기 싫고. 이제는 글로벌 테크 얘기도 좀 하고 방송 정상화 얘기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답변, 부적절한 내용, 이런 것들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잡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앞서서 질의했던 내용의 연장선입니다만 이진숙 위원장이 8월 27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쓴 저 글이 이진숙 위원장이 정리해서 내놓은 가장 최근의 본인 입장이고 저기에 보면 기억이 돌아왔다고 했고 정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사장님 댁 부근에서 과자류를 구입했는데 롤케이크 같은 것은 많은 양을 구비해 두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전에 가서 나머지를 구입했다’, 이렇게 친절하게 쿼테이션까지 달아서 수행비서의 증언인 것처럼 저렇게 적었습니다. 저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저 구체적인 내용이.

그런데 저 글을 다 읽어 보면 저희가 이미 파악해서 청문회 때 수도 없이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내용하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는데도 역시 반복해서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해요.

정치 공세를 할 때 이릅니다. 누가 이랬다, 누가 이랬다더라, 전언을 가지고 와서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할 때 최소한의 근거, 최소한의 논거 생략되는 경우 많아요. 그런 경우가 정당 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과방위에서 청문회할 때 단 한 분이라도 그

했던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제출한 그 자료를 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내역들 하나하나 꼼꼼히 다 확인하고…… 카드가 여러 개였어요? 한 사람이 쓴 단일 카드를 가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답변은 늘 업무용으로 사용했다, 이게 비리를 감추는 전형적인 화법입니다. 그래서 역시 반복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근거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공세하면서 구체적인 근거, 자료, 서류, 결제내역, 이런 것 제시하는 경우들 드물어요. 그런데 이 건은 유독 그런 주장으로, 계속 그런 질의로 이어지고 있어요. 매우 건강하고 합리적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책무가 지금 과방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페이스북에다가 적은 글을 풀이를 하면 표 맨 왼쪽입니다, 이진숙 주장이라고 돼 있는 것.

수행비서와 함께 나폴레옹이라는 서울 자택 근처의 제과점에서 과자류를 구매했다. 그리고 수행비서에게 법인카드를 맡겼다. 그리고 수행비서는 홀로 대전으로 돌아가서 모자라니 뚜레쥬르에 가서 롤케익 등 나머지를 구매했다, 저 흐름이에요.

시계열로 보면 이미 1월 8일에, 저 나폴레옹에서 구매한 1월 8일에 이진숙 씨는 서울로 저녁 때 복귀했기 때문에 저 말에 따르면 이진숙 씨의 수행비서와 함께 나폴레옹 구매한 시점은 1월 8일 저녁이 됩니다. 1월 8일 저녁에 서울로 복귀하셨어요. 낮에는 대전에 있었습니다. 퇴직한 날은 1월 9일 자고 1월 8일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수행비서에게 법인카드를 맡겨서 다시 대전으로 돌려보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전에 가서 수행비서가 뚜레쥬르에서 나머지를 구매했어요. 그때 이진숙 위원장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수행비서는 대전, 이진숙은 서울, 저게 결정적인 이진숙 주장의 모순이고 거짓입니다.

옆에 보시겠습니다.

실제로는 1월 8일 오후 2시 31분에 나폴레옹에서 43만 9000원 결제하고 함께 대전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파업 중인데도 불구하고 고생하는 분들을 만났는지 아니면 그냥 자택만 들러서, 대전에도 자택이 있으니까 거기만 들렀다가 온 건지 그것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 본인은 대전MBC에 들렀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 오후에 수행비서 차 타고 내려가서 대전에서 뚜레쥬르에서 결제할 때 그때 이진숙도 대전, 수행비서도 대전에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서울로 복귀하는 시점이 그 날 저녁입니다. 8시 14분에 자택 근처 보리밥집에서 결제가 이루어져요.

이것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결제내역입니다. 본인이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바로 그 법인카드, 수행기사가 쓰는 법인카드 말고. 그러고 나서 밥 식사 결제하고 30분 뒤에 또 스타벅스 결제가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하고 해명을 하라는데 나는 업무용으로 썼습니다, 부당하게 사적으로 쓴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동문서답이지요. 그 동문서답을 얘기하는데 그 동문서답 와중에서 정말 어렵게 페이스북에다가 본인의 입장을 썼어요.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동선 자체가 안 맞잖아요. 수행

비서는 대전으로 가고 이진숙 위원장은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뚜레쥬르에서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페이스북에다 써 놔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입장이 저 같으면 아무리 입장이 다르고 정파가 달라도 저것을 어떻게 부인해요? 저건 뭔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이지요. 착각이거나 거짓이거나 그래야 되는 거지요. 그거 이외에 가능한 경우의 수가 있나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빵에 중독돼 가지고 빵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의심합니다, 이거 빵이 아니라 깡인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희 위원 제가 가급적 의견에 대해서는 질의를 좀 지양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이진숙 위원장님께서 고위공직자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지위와 그 지위의 책임에 걸맞지 않게 너무나 부적절한 주장들을 공개적인 공간에서 하고 계셔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23일에 저희 방송 3법 통과되자마자 페이스북에 ‘방송계의 노란봉투법, 민영방송도 노조 권력 아래로’라는 글 쓰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이주희 위원 사실 다소 장황한 글이라서 논지를 파악하는 데 저도 몇 번 읽기는 했었는데요.

그 글에서 위원장님께서 국회가 직접 이사를 추천하기에 대한민국 이념의 양극화가 가속화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 취지 맞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국회가 직접 추천하는 인원이 있어서 드린 이야기입니다.

○이주희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말씀이시죠?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이주희 위원 그런데 방송 3법의 이사회 구성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당과 정부가 다수 그리고 야당이 소수를 추천하는 그 관행을 깨자는 취지로 이번에 마련된 법안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특히 여기 지금 PPT에 보시면 방송 3법 개정 전에는 KBS 이사 수 11명, MBC 이사 수 9명, EBS 이사 수 9명, 거의 다, 심지어는 추천 100%를 다 국회에서만 추천을 하였고요. EBS의 경우에도 과반이 넘게 국회에서,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마련이 되는 거지요, 이사들이.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방송 3법 개정 이후에 40% 이하로 줄인 겁니다.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자는 취지지요.

특히 우리 민주당에서는 다수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이사 추천을 40% 이하로 줄인 것인데 이건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방송정책의 민주화를 위해서 권한을 내려놓는 결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매우 부적절하게 객관적 사실에도 맞지 않는 평가를 하고 있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특히 이렇게 이사회 구성을 민주화하고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념의 양극화를 가속화한다 이런 논리를 폈었던 말이에요. 이렇게 구성을 다양화하는데 어떻게 이념의 양극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인지 저는 도저히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서는 한쪽 생각이 경도된 사람들끼리만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권에서만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논리가 도저히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아무 근거도 없이 언론학과 변호사 단체를 폄하하셨어요. 이사회 구성이 예전부터 계속 언론학자, 변호사들 포함되어 왔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도 위원장님 페이스북에서는 ‘방송국 이사가 되기 위해서 학자들은 각종 세미나장에서, 변호사들은 방송 출연해서 각 정당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보고서와 발언들을 쏟아 낼 것’ 이런 표현까지 쓰셨단 말입니다.

왜 전문가들이 전문가로서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양심을 포기할 것이라고 단정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단정한 것이 아니고 저의……

○이주희 위원 그렇게 쓰셨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의 의견입니다.

○이주희 위원 그런데 단정하고 쓰셨던 그 의견이 문제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언론학자나 변호사들은 오랜 기간 공영방송 독립과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연구하고 노력해 온 공로자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사회 구성원으로 계속 포함되어 온 전문가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자의 양심, 공직자의 양심을 극우 세력에게 맞춘 맞춤형 방통위원장의 발언을 쏟아 내는 분, 바로 지금 위원장님 아니신가.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이 부분, 이거 꼭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글의 전체적인 맥락에 담겨 있는 위원장님의 노동 적대적인 사고, 이 부분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PPT 보시면 ‘기업에서 노조의 권한을 한층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민영방송도 노조 권력 아래로 간다’, ‘앞으로는 편성위원회에서는 노조 눈치 봐야 한다’, ‘사장은 노조의 비토를 당하지 않으려면 노조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경영한다’.

방송이 민주화되면 공영방송 노조가 권력을 잡고 방송국 장악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 세요. 내용도 정말 근거가 없고 무논리지만 그 근간에 노동자들, 우리 노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를 넘은 비이성적인 공포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고 이용마 MBC 기자 잘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이주희 위원 이명박 정부 시절에 MBC를 비롯해서 공영방송 노조가 언론 자유 등을 요구하면서, 지금 사실 저희 상임위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줄기차게 이야기한 기조이기도 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면서 파업에 나섰고 상당수 기자가 해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용마 기자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셨습니다. 저는 그 뜻이 참 숭고하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셨던 노동자들의 목소리 지금도 저희가 계승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의 주장에는 다수 국민의 목소리와 행동을 적대하고 그 공포감을

느끼고 계세요. 그 자체가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는 반헌법적인 사고를 가졌다는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국회와 국민을 적대시한 윤석열이 오버랩되는데요.

위원장님, 그리고 특히 저는 약자에 대한 감수성과 공감 능력이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세월호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하셨던 행동들 그리고 위원장보다 권한이 적은 구성원들,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이런 태도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위원장님께서 이런 감수성을 정말 가지고 계신지, 제가 느껴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들을 배척하고 외면하는 그런 태도가 어떻게 고위공직자에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지금 공영방송사에서 노조는 소수도 아니고 약자도 아닙니다.

○이주희 위원 일단 조금 더 말씀드리면……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세요.

○이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범 위원 참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사실확인을 좀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저도 답답한데…… 2015~2018년 MBC 사장 하실 때 법인카드가 몇 장 있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알기로 최소한 세 장으로 알고 있고요.

○신성범 위원 알고 있기로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왜냐하면 저는 한 장만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다만 법인카드 내역서를 보니까,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제가 사용하지 않은 고깃집에서의 사용이라든가 또 치킨 같은 간식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제가 기자들이나 PD들이 야근을 하고 할 때……

○신성범 위원 잠깐만, 내 말씀은 그러니까 이진숙 사장이 하나 갖고 있고 수행비서가 하나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신성범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총무국, 총무부?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총무부에서 몇 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성범 위원 보통 사장의 법인카드라 하면 누구누구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업무용으로 쓰는 법인카드를 이야기합니다.

○신성범 위원 혼자 쓰는 거?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신성범 위원 그때 그러면 수행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운전하시는 분이 하나 갖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그것도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전 4시 34분에 1만 6500원, 파리바게뜨 게 공용이냐, 뭘 했냐고 추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무슨 카드인지 모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모르겠습니다. 특정 날에…… 사실 몇백 건이, 최소한 몇백

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정한 날을 찍어서 이건 누구하고 썼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면 적어도 유성경찰서 조사 과정에서는 2017년 11월 5일 오전 04시 34분에 파riba게뜨에서 1만 6500원 끊은 것에 대해서는 추궁당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 기억은 지금 나지 않고요. 제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조사 결과를 보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범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왜…… 나는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단언한 근거는 뭐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실질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 결과는 경찰조사 결과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경찰조사 나올 것이라는, 나오겠지요. 아무래도 이렇게 큰 문제가 됐으니까 경찰에서도 아마 살살이 조사할 테고 어떻게 보면 또 여당 위원들의 주장인 만큼 소홀히 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봅시다.

또 하나는 당시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방 MBC 계열사 사장이라 함은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 성격도 있지만 판촉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것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MBC 본사에서 법인카드 사용 규칙이라든지,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나요? 해마다 감사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해마다 감사합니다. 대전MBC 자체적으로도 감사가 있고 본사에서 감사가 실시됩니다.

○**신성범 위원** 말 나온 김에 1년에 얼마 정도 쓰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신성범 위원**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 기억에—이것도 기억에 의존하는 겁니다만—월 400 안팎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월 400?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신성범 위원** 한도는 연 5000 되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한도라는 것이……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맥시му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링이? 어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사장님한테 줄 때는 나름 총무부에 와서 설명을 하잖아요, 이것 한도가 얼마입니다라든지.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얼마까지 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들은 적이 있고, 기억이 있고 저는 그것을 400 안팎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400 안팎?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신성범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더 말할 수는 없는 건데 나름 위원장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확신인지 기억의 오류인지

그 부분을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좀 기다려서 수사 결과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특정한 날을 찍어서 이거 누구하고 썼냐라고 하면 제가 제 기억에 의존해서, 때로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성범 위원** 예를 들어서 수사 결과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게 꽤 금액이 나오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건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지요, 제가.

○**신성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읍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방통위 사무처장대행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방발기금 사업 지원기관 감독 불일치, 아리랑국제방송하고 국악방송 문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하고 소위 때도 얘기를 해서 지금 징계가 시정인가로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조치를 취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지금 문화부하고는 협의를 시작을 했어요. 아직 기재부하고는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훈기 위원** 저번에 기재부도 만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얘거나 제대로 하고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PPT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우리 예산 결산하면서 지난해에 ‘문체부에서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증액안을 수용했다’. 그래서 시정요구로 ‘예산 지원기관과 감독기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문체부 일반회계로 편성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이훈기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형식적인 일만 하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물어봤지요? 5년간 아리랑국제방송하고 국악방송에 얼마 지원했는지 제가 물어봤는데 1600억 했어요, 5년간 2개 방송에.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한……

○**이훈기 위원** 들어 보세요.

그리고 5년간 지역방송과 중소방송에는 한 40억씩 해서 5년 했으니까 한 200억 했어요. 8배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역방송하고 중소방송 한 40개 돼요. 그러면 1개 방송에 1년에 1억도 지원을 안 한 건데 지역방송하고 중소방송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고 있어요, 매출액에서 얼마 떼서.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이훈기 위원** 아리랑국제방송이나 국악방송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한 푼도 안 내잖아요. 그리고 관리 감독도 문체부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데 왜 방발기금을 계속 주면서 이거를 계속 지적을 받아도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거 예산 결산할 때 징계 주자 그랬는데 여기 조인철 소위원장하고 그래

도 시정으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어요. 저는 징계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방통위도 움직이고 문체부도 움직인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기본적으로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이 문제가 저희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이훈기 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 문체부에서 일반회계로 하겠다고 수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왜 또 방발기금으로 내겠다고 방통위에서 하나는 거예요, 지역방송 지원도 못 하면서.

이진숙 위원장, 대전MBC 사장 할 때 지역·중소 방송 지원하는 거 방통위원회에서 얼마나 줘요? 공모해서 한 1억 정도씩밖에 안 주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습니다.

○**이훈기 위원**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걸 지역·중소 방송한테 돌리라는 것은 지금 지역소멸 위기에서 지역방송이 존재 이유를 증명하려면 그래도 한 사오억 정도 들여서 프로그램 하나 정도, 지역의 역사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취재를 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라는 거예요.

이진숙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도 지역방송 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훈기 위원께서 제안하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산편성 할 때만 되면 지역방송사들의 기자들이 그 지역구 의원을 찾아가서 제발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말끝마다 지금 1인이라 일을 못 한다는데 이걸 1인의 이진숙 위원장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이것은 예산편성에서도 그렇고 다 문제가 있는 일이고 바로잡아야 되는 일이고 문체부에서도 자기네 일반회계로 내겠다고 작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진숙 위원장은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맨날 1인 체제여서 아무것도 못 한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문체부와 기재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저희가 계속해서 논의하고 설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이진숙 위원장은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사무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이훈기 위원** 지금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해결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이훈기 위원** 제가 보니까 기재부에 제대로 말도 못 하는 것 같아요, 문체부도 그렇고.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훈기 위원** 이거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해결 못 하면서 무슨…… 1인 체제라 일을 못 하고 그런 얘기 앞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도, 당연히 해결해야 되고 누가 봐도 이걸 당연히 방통위가 바로잡을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못 하면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와서? 조속히 이번에 조치를 꼭 취해서 편성을 제대로 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기본적으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다만 재정 상황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훈기 위원** 아니, 무슨 재정 상황을 얘기해요. 방송통신발전기금 몇 푼 안 되는 것 내지도 않는데 왜 5년 동안 1600억씩이나 퍼 주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고?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아까 제가 정치적 중립 위반만 얘기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대전MBC 사장 시절의 법인카드 유용 오를 수없이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뽕 산 거에서 여러 가지 위증했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은 형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답변만 하고 있고.

그리고 하드디스크 불법과기, 이거 241대 장비 파쇄 시도했고 일부는 하드디스크 천공도 진행해서 이거 공수처에 고발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선거법 위반, 이것은 감사원에서 주의 처분받고 이것 때문에 지금 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iMBC 주식 4200주 백지신탁 청구하고 이 안에 MBC 관련 안건 의결에 참여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윤리법 위반으로, 이것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임하고 징계요구 대상이라고 통보를 했어요, 해임도 할 수 있고 징계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방통위를 식물 체제로 만든 것은 여러 가지 제가 더 말할 필요 없고.

아니, 이렇게 많은 사안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 국회에 와서 본인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 없고 공직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정의롭게 일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지요?

○**위원장 최민희** 김현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현 위원** 이진숙 방통위원장님은 지금 전한길 씨가 이진숙에 양보하겠다는, 대구시장을. 그 기사는 보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봤습니다.

○**김현 위원** 그리고 직권면직도 보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김현 위원** 보통의 경우는 본인이 부당하다 그러면 본인의 의사를 밝히지요, SNS를 통해서?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밝힐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리고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때는 밝히는 일이 더 많았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나면 지금 출마설이 나오면 본인에게는 불리하잖아요. 그러면 아니나라고 바로 반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를 마치겠다는 표현 외에 대구시장을…… 말 그대로 임기를 마치면 출마 못 한다, 그러면 출마 못 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그런데 임기가 지금 종료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법을 제정하면?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 위원** 어떻게 상정이 안 됩니까? 법이 상정이 돼 있는데요. 오늘 일부 위원들에

게 그것에 대한 질문을 여러 차례 받으셨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김현 위원 그러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군림을 할 수 없지요, 제가 입법기관도 아닌데.

○김현 위원 그렇지요.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임기가 내년 8월까지가 아니라 9월까지 또는 10월까지라면 임기가 종료되는 거지 않습니까, 법이 제정이 된다면?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알겠습니다.

한겨레21에 나온 PPT 좀 띄워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태균 게이트 주요 의혹 및 관련 인물’, 이거 언론에 보도됐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이걸 보지 못했습니다.

○김현 위원 그다음에 한겨레21 또 하나 띄워 보시지요.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게이트 타임라인’이라고도 있어요. 이것도 본 적 없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김현 위원 ‘김건희 관계도’, 시사IN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본 적 없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김현 위원 그런데 한번 보시지요.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딱딱딱딱 답변을 하셨는데, 보면 김건희 씨가 지금 이런 사유로 구속이 돼 있어요. 그리고 특검이 진행 중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답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아니, 아까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답을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 중립의 의무를 훼손하고 있다, 방통위원장이. 선별적 답변이거든요. 현재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는 치지 않더라도 지금 대통령은 엄연히 존재하는 거고요.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추천한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방통위원장인 건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검찰의 탄압을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한 이유는……

그래서 정치를 하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에 대한 평가는……

○김현 위원 아니, 평가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정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독임제 기구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독임제 기구로 전환해 달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독임제는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회의록을 보니까 독임제를 주장하셨어요.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말씀하십시오.

○**김현 위원** 아니, 말씀하십시오가 아니라 말씀하세요. 답변하세요. 독임제 기구 주장한 것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주장을 했다고보다 제가……

○**김현 위원** 생각한다라고 답변했지요? 독임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독임제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현 위원** 예, 맞습니다. 독임제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독임제를 꺼냈고 독임제가 맞다고 생각한다, 독임제 주장하신 거예요.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말장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 위원** 독임제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그 당시 아마 그 말이 나왔던 것은……

○**김현 위원** 아니,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가 독임제로 가야 되는지 묻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지금 이제 법안까지 상정한 판에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독임제는 못 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아니, 본인의 생각, 개인의 생각, 방통위원장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합의제 기구입니다.

○**김현 위원** 아니, 새로 상정한 법안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라니까요? 왜 질문을 못 알아들어요? 제 질문은 새로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독임제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독임제는 주장을 안 하는 거고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 이후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김현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못 들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지난번에……

○**김현 위원** 아니, 조금 전의 답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 이후로 독임제 관련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김현 위원** 6월 10일 날 얘기하고 19일 날 한 번 더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독임제가 아니라고 치면, 그러면 지금 제정법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아까 얘기하셨지요? 본인을 그만두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법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반대하는 거지요, 그러면?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김현 위원** 반대하는 입장이지요? 그러면 사무처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에 뒷받침하겠다고 하는데 사무처하고 방통위원장은 입장이 다른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사무처의 입장은 법이 통과되면 그 후속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 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후속조치가 아니고요. 2소위에 나와서 방통위 입장을 방통위원장의 개인 입장이 있고 사무처 입장이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위원장의 개인 입장과 사무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라고요. 다르지 않다는 겁니까, 그러면?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위에서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김현 위원** 소위에서 오고 간 내용 보고 안 받으셨어요?

사무처장, 보고 안 하셨습니까?

직무대행님 나와 보시지요.

위원장 개인의 입장과 사무처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개인의 입장인지 확인했을 때 사무처의 입장을 가져오기로 했지요, 그 뒤에? 그러니까 방통위 위원장은 심의 의결을 할 수 없고 회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의 의견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위원회의 의견은 뭐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위원회의 의견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김현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뭐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처는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김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근본적인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공무원이 정치 중립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위원장 최민희** 정무직공무원도 정치 중립 의무가 있다,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위원장 최민희** 윤석열의 12·3 쿠데타가 내란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재명 대통령은 허위사실유포범, 대북불법송금범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때 아마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최상목……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불법송금범 그것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번에 통과된 방송 3법, 국민의힘이 반대합니다. 정부 여당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통과되었습니다. 본인은 방송 3법에 반대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에도 반대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을 왜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진행하는 모든 정책에 반대하고 윤석열의 쿠데타는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소위 정부 여당과 이재명 정부와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 왜 그 자리에 있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에 계엄을 했습니다. 내란과 관련해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탄소리 하지 마시고 왜 그 자리에 있냐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법이 정한 제 임기……

○위원장 최민희 중요한 것은, 정무직공무원의 의미가 뭘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법이 정한 제 임기를……

○위원장 최민희 정무직공무원은 왜 임명합니까? 대통령은 정무직공무원을 왜 임명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 자리에 적임자를 임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윤석열이……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그런 작은…… 제가 질문할 때 잘 들으세요. 아까도 자꾸 법카 3개 있다 이러면서 헛갈리게 하려고 하시는데 저희가 분석한 법카는 이진숙 사장 개인 법카 분석한 겁니다. 그걸 자꾸 헛갈리게, 이게 다른 사람이 썼나? 듣는 사람 헛갈리게 하던데 헛갈리게 하지 마시고.

제 질문을 잘 들으셔야 하는 게, 제가 본질적인 질문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윤석열이 이진숙 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윤석열과 방송 철학이 같아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것은 인사권자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정무직공무원을…… 말 돌리지 마시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무직공무원을 임명할 때는 대통령의 철학과 같은 사람을 대체로 임명하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말 돌리지 마시고요. 윤석열이 이진숙 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본인의 방송 철학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현해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윤석열 대통령이 답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무직공무원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잘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는데 본인과 방송 철학이 다른 사람 임명하겠습니까? 윤석열의 방송 철학은

한마디로 방송장악, 방송 때려잡기였고요. 그런 철학하에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방송 3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방송 독립 이해도 못 하고 무조건 반대합니다. 반대로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적어도 방통위 직원들은 다릅니다.

방통위 사무처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지금 방송 3법은 통과됐습니다. 공포됐거든요. 후속 작업을 해야 되겠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 준비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예를 들면 편성위원회 관련하여 방통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위원장 최민희 그게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제가 초안을 보고받았고요.

○위원장 최민희 받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그리고 아무래도 사실은 그게 방송사의 돌아가는 사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곳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앞으로는 방송사는 때려잡아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박장범 사장의 KBS도 안형준 사장이 있는 MBC도. 방통위가 국가행정기관이기는 하지만 방송사들이 진흥 잘되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같이 앞으로는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그 기본적인 틀이 완성되는 대로 국회에도 여야 위원들 모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에 통합방송법으로 방송위원회 뜯는 것 알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2008년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으로 방통위원회가 났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위원장 최민희 박근혜정부가 소위 미창부 얘기하면서 약간 방송 쪽의 규제가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방송통신 관련 일괄적으로 방통위가 규제했는데 일부 진흥과 규제가 과기부에 남아 있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것은 다들 기형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재구조화돼서 유료방송 진흥·규제 정책을 가져왔을 때 감당하실 수 있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방통위가 약간 기형적인 상태에서 방송장악 문제로 시끄러웠기 때문에 조직의 일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실 방송 3법이 시행되면서 방송사들도 본인들에게 어떤 독립성이 부여되면서…… 사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갈 길이 멀거든요. 그 중심을 잡고 행정적으로 잘 이끌

어 가야 되는 부처가 방통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 생길 부처 역시 방통위원회가 확대 개편 혹은 재구조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사무처장님 중심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 위원(19인)

김우영 김장겸 김 현 노종면 박정훈 박충권 신성범 이상휘 이정현 이주희
이준석 이해민 이훈기 조인철 최민희 최수진 최형두 한민수 황정아

○청가 위원(1인)

정동영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이재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제1차관 구혁채

제2차관 류제명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전영수

정보통신정책실장 송상훈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미래인재정책국장 홍순정

전파정책국장직무대리 김경우

과학기술정책국장 강상욱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서경춘

성과평가정책국장직무대리 박진희

국제협력관 황성훈

비상안전기획관 황의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김성수
공공융합연구정책관 정택렬
연구성과혁신관 이은영
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경만
소프트웨어정책관 황규철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박태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최우혁
통신정책관 이도규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대변인 조선학
감사관 김정기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조해근
국립전파연구원
원장 정창립
중앙전파관리소
소장 최준호
국립중앙과학관
관장 권석민
국립과천과학관
관장 한형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기획조정관 성종원
방송정책국장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박진희
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사무처장 조정아
방사선방재국장 김성규
우주항공청
청장 윤영빈
차장 노경원
우주항공임무본부장 존리
기획조정관 이재형

우주항공정책국장 권현준
 우주수송부문장 박재성
 인공위성부문장 김진희
 우주과학탐사부문장 강경인
 항공혁신부문장 김현대

【보고사항】

○위원 개선

소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	박민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2025. 8. 26.
청원심사	박민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안 회부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5. 8. 25.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1)

8월 26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6.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6.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8)

이상 2건 8월 27일 회부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466)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6)

이상 5건 8월 29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5.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0)

8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

(2025. 8. 27.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6)

8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	소관부처
----	------	------	------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	소관부처
대통령령	제35672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제154호	우편법 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